

학교교육과정

학교를 담다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학교 교육과정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담은 행복학교 교육과정은 미래교육의 밑거름이다!

‘행복학교란 무엇인가?’

새로운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학교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에 지난시기 개별 교사의 학급 단위 교육 혁신에 대한 한계가 누적되어 학교 단위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제도화된 것이 ‘행복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학교는 새로운 학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서 실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학생,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교사, 학교가 어렵기만 한 학부모의 모습이 지금까지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행복학교입니다.

‘누구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인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고 실천적인 학교 교육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하여 만든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자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교육자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천적인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동체, 삶, 행복, 열정, 자율...

학교교육과정은 학생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남의 모든 학교가 제 빛깔을 가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이제 학교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서로를 잇는 이음공간입니다. 미래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열정과 자율이 부여된 공간입니다.

‘학교교육과정, 학교를 담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학교를 담다’에서 이야기하는 학교교육과정의 철학이나 실천처럼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민의 이야기와 삶을 담은 학교교육과정을 기대해 봅니다.

목 차

프롤로그 | 5

Chapter 01. 학교교육과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9

Chapter 02. 학교교육과정 넌 누구냐? | 15

Chapter 03. 학교교육과정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 23

Chapter 04. 학교교육과정, 이걸 어때요? | 31

Chapter 05. 학교교육과정 내비게이션 | 45

Chapter 06. 학교교육과정 상상하다 | 97


에필로그 | 111

프롤로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담은
행복학교 교육과정은 미래교육의 밑거름입니다.

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만들고 실천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학교교육과정에는 학교가 없다.

지금의 학교교육과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좋은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교육과정은

경남에 있는 학교든

서울에 있는 학교든

제주도에 있는 학교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빠진 학교교육과정입니다.

앞으로의 학교교육과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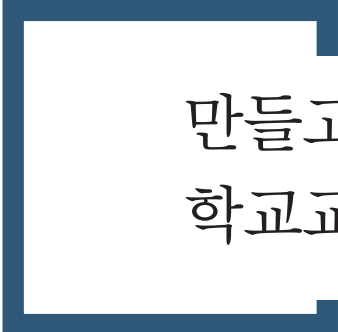
우리 학교가 들어있는 학교교육과정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을

세심히 관찰하고 소통하여

우리 학교에 필요한 교육을 담은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보기를 기대합니다.



만들고 실천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01. 만들기만 하는 학교교육과정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02. 실천하는 학교교육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03. 쓸모있는 학교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드나?

이런 선생님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 01.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선생님
- 02.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지 막막한 선생님
- 03. 학교교육과정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고 싶은 선생님
- 04.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싶은 선생님
- 05. 빛깔이 살아있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이 불편했고 궁금했던 분...

Chapter 01

학교교육과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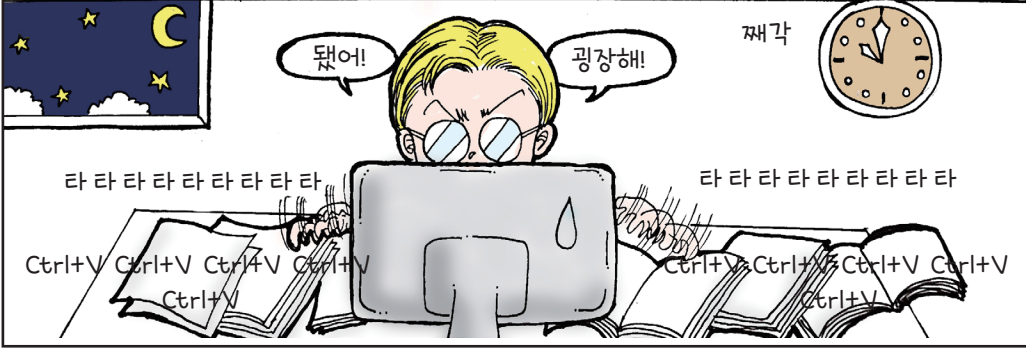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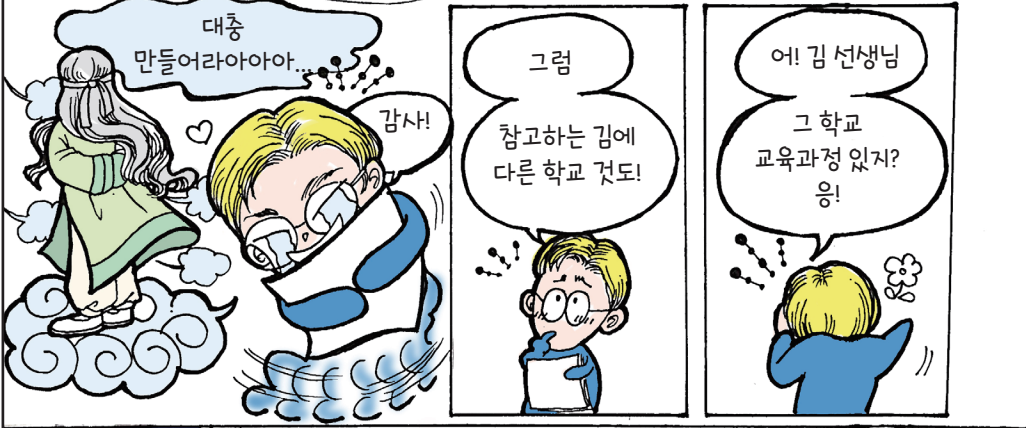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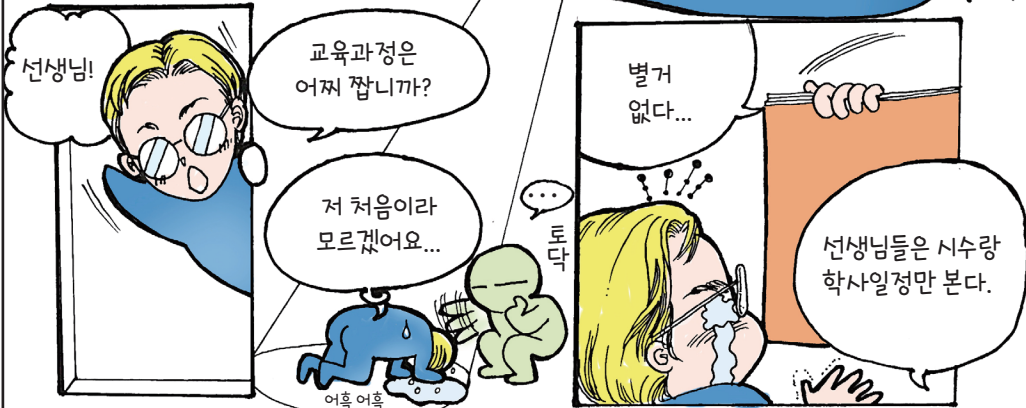
학교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있습니다.

매년 학교교육과정을 다시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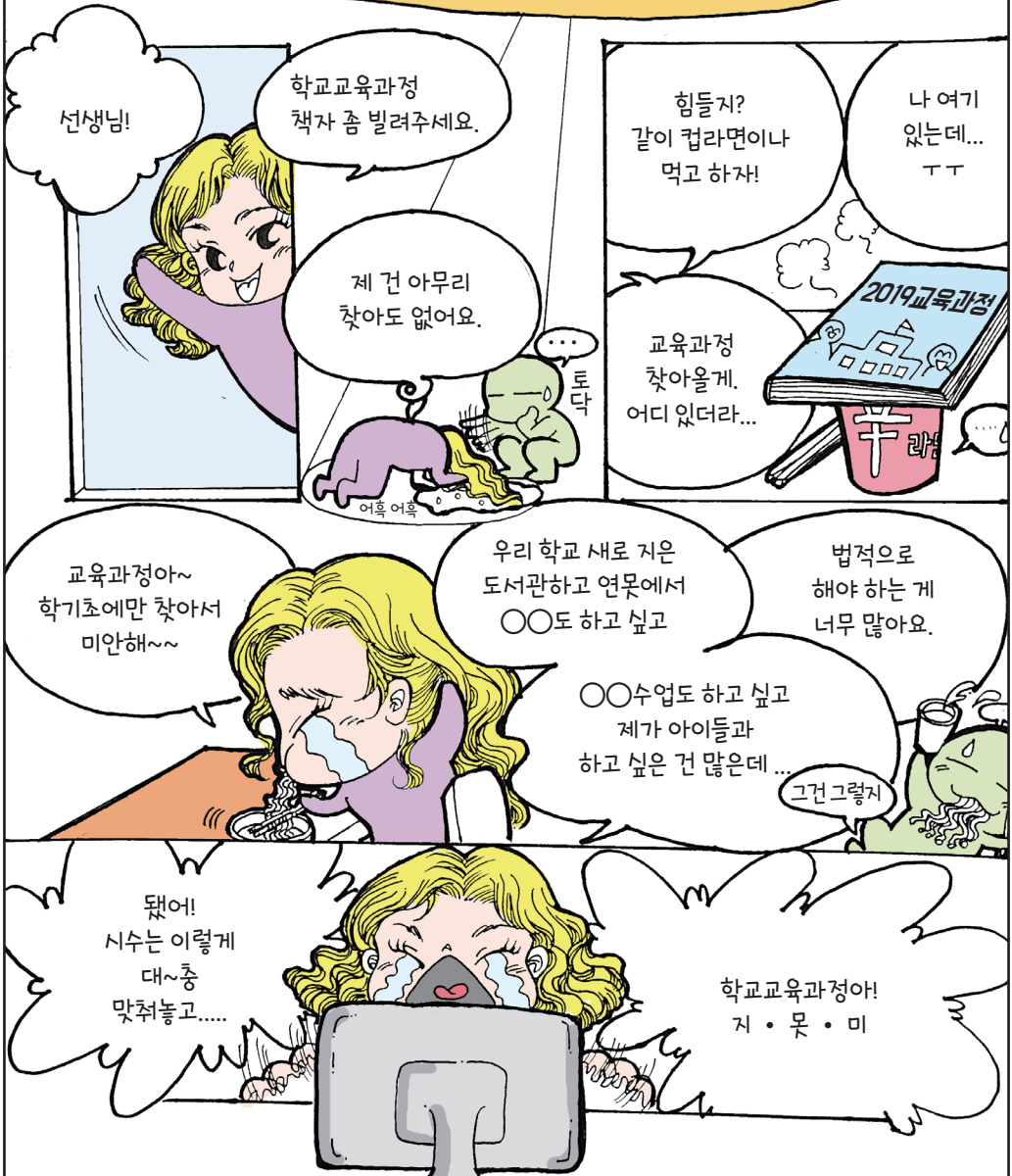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에게 학교교육과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서와! 연구부장은 처음이지?



2019 학교교육과정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림을 그리다 - 예림초등학교 교사 오유숙

학교교육과정 셀프 테스트

이것은 학교교육과정에 대해 재미 삼아 하는 테스트입니다. 점수가 높다고 상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읽고 1초 이내로 체크 해주십시오. 준비되었습니다까? 시작하십시오.

	문제	1점	2점	3점
1	학교교육과정은 지금 어디 있나요? 파일이든 책이든 찾아주세요.	나는 모른다. 연구한테 물어봐라.	추측되는 장소가 있지만 확신이 없다. 10분만 주라.	1분 내로 찾아올 수 있다.
2	학교교육과정은 누가 만들었나요?	연구부장 혼자만의 싸움	연구부장과 선생님	연구부장과 선생님, 학생, 학부모
3	학교교육과정과 내 수업의 관계는 어떤가요?	학교교육과정과 내 수업은 완전 별개	내 수업에 학교교육 과정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님	학교교육과정이 수업에 적극 반영됨
4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나요?	매 차시 성취기준	우리 반 아이들의 1년 후 모습	우리 학교 아이들의 6년 후 모습
5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전시용 또는 냄비 받침대	학사일정과 시수 맞출 때	우리반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실천
6	학교의 특색교육이나 중점교육을 말할 수 있나요?	유구무언	한 두 개 정도?	다 안다! (내가 연구다)
7	우리 학교에서 전 교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하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까?	그런 철학 정한 적 없음	철학을 정하긴 했으나 실천은 글썩...	실천하고 있는 철학이 1가지 이상 있음
8	연구부장이 된다면 학교 교육과정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응용력 갑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짜집기!)	같이 죽자 (선생님들한테 페이지 별로 배분하기)	선택과 집중 (한 줄이라도 우리 학교에 맞게 쓰기)
합계				

※ 응답 점수를 더한 다음 아래 해당되는 점수의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0-6점	7-13점	14-18점
마이웨이 형 학교교육과정과 수업은 각자의 길이 있다. 건드리지 마라!	이도 저도 아닌 형 학교교육과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나도 불편했다.	교육 전문가형 축하합니다! 훌륭한 교육과정 전문가이시군요.

학교교육과정을 묻다!

새로운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학교교육과정입니다.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누구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던 것들은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선생님들의 솔직한 학교교육과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질문’을 ‘우리 질문’으로 만들어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교육

- ◇ 교육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 ◇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누구를 위한 교육과정인가요?
- ◇ 우리는 왜 교육하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

- ◇ 학교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아이를 보고 만들어지나요?
- ◇ 교육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가요?
- ◇ 2015 교육과정의 역량은 교육의 대상을 교육의 주체로 보는 것일까요?
아님, 또 다른 기준이라는 틀 속에서 생산의 일꾼, 산업역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만 잔뜩 나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 ◇ 그렇다면, Deseco선언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얼마나 아이를 중심에 둔 교육인가요?

#국가-지역-학교

- ◇ 해방 후,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교육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 ◇ 국가, 지역 수준 교육과정은 교육 본질과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까요?
- ◇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지역수준-학교수준으로 위계가 있습니다. 학교로 갈수록 학생에게 맞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나요?
- ◇ 학년(급)교육과정의 맥락을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성취기준과 연계해서 만들어가고 있나요?
- ◇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공통성이고 학년(급)교육과정은 개별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 ◇ 그렇다면, 학교 현장의 개별성에서 공통성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교육학의 관점이 아니라, 학급, 학년, 학교, 지역, 국가 순으로 계통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학교교육과정

- ◇ 학교교육과정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나열되는 것이 맞을까요?
- ◇ '학교교육과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소개글, 맥락을 알려주는 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 사례 중심 각종 자료가 교직의 사고를 단편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 정도의 길라잡이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학교교육과정을 위한 도움 자료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요?
- ◇ 학교교육과정이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을 담는 것이라면 우리 학교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 문화는 삶의 양식이지요. 이것은 생각의 방식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이 학교의 문화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담겨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교사는 수업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교육과정 전문가 되어야 할까요?

Chapter 02

학교교육과정, 넌 누구냐?

학교 교육을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볼 것인가, 실용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는 마치 '나무는 꽃을 생산하는가, 과일을 생산하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

나무는 이 둘을 모두 생산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둘 다 옳다.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은 인간에게 큰 비전을 갖게 하고 인간성을 실현해 준다.

실용을 추구하는 교육은 인간의 삶에서 의무 수행을 다하는 것,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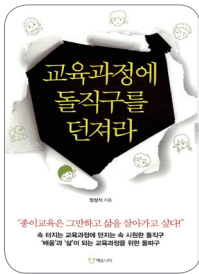
학교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길을 잃어버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왔던 길을 되짚어 방향을 새롭게 잡아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나가야 할 방향과 그 여정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교육과정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또 한 해를 거듭하며 질문이 해답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출처 : 삶이 있는 수업(류창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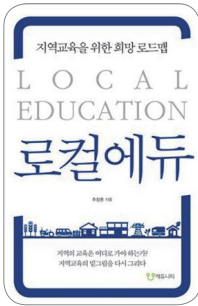
교육과정이란 무엇일까?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교육 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전체계획을 교육과정이라 하는데 현장 교사들의 속내는 또 다르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1년짜리 공문', '면죄부를 위한 종이짜가리', '가면', '화장', '결혼식 턱시도' 등으로 표현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출처 :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정성식, 2014)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의 교육 공장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체제를 위해 고안되었던 대량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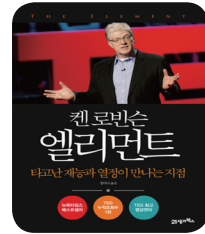
출처 : 엘빈 토플러



로컬에듀는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교육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있다. 학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학교가 그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떠날 것이다. (중략) 로컬에듀의 핵심은 학교의 변화다. 학교의 변화는 곧 학교교육과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로컬에듀(추창훈, 2017)

사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감안하면 교육에는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혁신의 문을 열어줄 열쇠는 교육의 표준화가 아니라 교육의 개인 맞춤화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해 주려는 토대 위에 성과의 기준을 세우고, 학생들이 의욕있게 배우며 진정한 열정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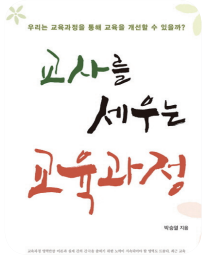


출처 : 엘리먼트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켄 로빈슨, 2016)



교육과정은 발달과 협력의 원리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교양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개개인의 주체적 삶의 역량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발달과 협력'에 기초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피상적인 지식의 양적 누적이 아닌 협력적 교수-학습을 통한 주체적 지성화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단위 교육과정은 초중등 핵심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큰 틀을 구성하되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해야 합니다.

출처 : 관계의 교육학, 비고츠키(진보교육연구소, 2015)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역량의 필요성과 의의, 내용을 교육과정 편제 이전에 제시함으로써 역량이 교과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역량의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시대가 교사에게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에 교사가 잘 알고 있던 교육과정의 모습과는 다른 교육과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학교교육과정을 지역, 국가, 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사,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공동의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자원들이 협력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 교실, 교사에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 연구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개발자요 교육기획자이다.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곧 교사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다.

출처 : 교사를 세우는 교육과정(박승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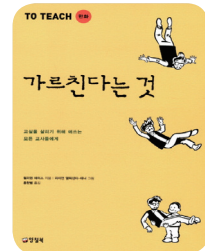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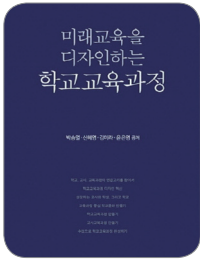
교사를 지성인으로 본다면,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활동을 교육과정의 집행과 분리하는 교육이론에 담긴 기술적, 도구적 이데올로기에 강력한 이론적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지, 무엇을 달성하려고 애쓰는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목적과 조건을 형성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출처 : 교사는 지성인이다(헨리 지루, 2001)

교육과정은 정보, 주제, 과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은 어떤 지식과 경험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이 문제는 독특한 색조와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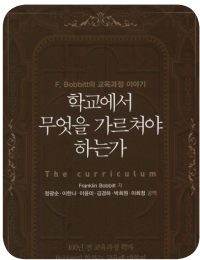
출처 : 가르친다는 것(윌리엄 에어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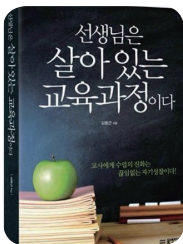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면서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자로도 확대되었다. 교육과정의 최종적 실천자인 교사가 바로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이고 개발자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는 학교교육과정 (박승열, 신혜영, 김미라, 윤은영, 2018)



학교의 교육과정은 주로 일상적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체 교육목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교육하지 않아도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습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으며 금방 지나친다는 점에서 교육은 일상과 구별된다. 마치 질병 치료처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도적인 교육이 있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특정 경험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출처 :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Bobbitt, 1917)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별한 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 있는 것을 학교 현실과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하는 가르침과 그 배움은 즐거움이다. 감동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이 아니다. 메마른 지식만 전달할 뿐인 것이다.

좋은 학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리자든 교사든 모두가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안된다고 하기보다는 한계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서 교육은 늘 새로운 도전이며 능력이다.

출처 : 선생님은 살아있는 교육과정이다(김용근, 2014)

Step 2.

교육과정 법적 근거



* 법적 근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학교교육과정 관련 법적 근거는 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근간으로 하며, 그 시행 및 예외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다. 이를 육하원칙에 따라 알아보자.

왜?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정당, 종교로부터 중립적인 그래서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 제14조(교원)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디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나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다. 여기서 학교, 교실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개념으로서 학교, 교실이다. 따라서 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는 곳은 모든 학교 및 교실이라는 개념에 속한다.

【교육기본법】

☑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누가?

자격을 가진 교사(혹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가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초·중등 교육기본법】

☑ 제21조(교원의 자격)

-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을?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준하되(제23조), 정해놓은 법적인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경우(제61조)도 있다.

【초·중등 교육기본법】

☑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교사)·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어떻게?

학교교육과정으로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를 지역, 학교, 학생에게 맞춰서 사용하며, 교재 및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한다.

【초·중등 교육기본법】

☑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2조(기능)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언제?

1년(3월1일부터 2월말까지)을 단위로 190일 이상, 두 학기로 나눠서, 총 6년 동안 학교교육과정을 적용 하되, 1/10 줄일 수 있다.

【초·중등 교육기본법】

☑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4조(학기)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Chapter 03

학교교육과정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은 무엇보다

모든 학교가 같은 일을 다른 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학교교육과정일지라도 공공성에 기여하고

다른 일이기 때문에 학생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 문화에서 꽃피는 다양성이나 개별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야
할까요
?

학교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업무담당자가 아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만들면?

학교자치 참여를 통해 주인 되기

자발적 참여와 책임이 갖든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자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천할 교사의 의지와 신념과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 준 교육과정은 내게 필요가 없는 문서가 되어 책꽂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참여를 통해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진정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교육공동체의 합의된 약속

함께 모여 협의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가 존중되는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기본 틀로써 학교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그 목적을 깊이 공감하는 가운데 실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된 교육공동체 약속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전문성 집단 지성의 시너지

개인의 관점을 넘어 우리의 관점으로 만든 학교교육과정은 공동의 사고로 개별 교사가 가지는 한계와 부족함을 함께 메워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끝내야 할 과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르치고 배우는 순환구조 속에서 교사 전문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전문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제 손으로 직접 만든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상황과 학생을 가장 잘 반영한 ‘우리 학교교육과정’ 이 될 것입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 교육활동의 나침반

함께 만든 학교교육과정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근거,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중심의 학교운영을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 살아있는 교육활동으로써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

학교교육과정에
우리 학교를 담자

교육공동체의 약속이 있는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은 배움과 삶의 연속성을 위해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교육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의 미래와 꿈을 고민하고 저마다의 속도로 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지킬 수 있는 합의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야기로 시작하는 교육과정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방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의 모습,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고 학생들의 이야기와 필요로 시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뜻과 길이 있는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는 학교에 몸담고 삶을 이어가는 교육공동체(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사회 등)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교의 비전, 철학, 방향,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는 학생들이 6년 동안 매년 배워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상시 활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과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선생님들은 바뀌지만 아이들은 6년을 그 학교에서 배우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절되어 있지 않기에 연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교육활동의 바탕이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교사는 학교교육과정을 교육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함께 정한 교육 가치를 학년과 학급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학년/학급교육과정 운영 중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맞는 상황에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다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을 교육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철학, 공동체 약속, 교육활동 등의 공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힘을 보탬 수 있게 돕는 지침서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동체에게 학교교육과정은 실천, 평가, 수정이 반복되는 기록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이 구성원과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달라지며 변화한 내용을 통해 학교 문화로 발전하는 과정을 담은 학교 역사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시도 및 국가 교육과정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 환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어 짜놓은 학교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연간 시수표와 교과별 진도표를 만들어 놓으면 학교교육과정이 완성된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의 약속이나 우리 학교의 실태는 형식적 문서로 실려 있고 실제적인 수업 실천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학교교육과정의 평가와 지원의 기능도 살리고 계획하고 만들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긍정적 환류의 역할을 붙여넣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hapter 04

학교교육과정, 이걸 어때요?

우리 학교가 나아가야 할 뜻과 길이 들어있는 교육과정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교육과정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활동을 펼칠 교육공동체의 약속이 담긴 교육과정

학교에서 보내는 6년의 삶이 분절되지 않은 교육과정

현장에서 이를 하나하나 고민해 온 과정

그 속에서 교육 주체가 나눈 이야기와 약속을

고이고이 교육과정에 기록하여 담은 학교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01. 교육공동체의 약속이 들어있는 학교교육과정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근거를 우리가 함께 정하면 어떨까요? 학교교육과정의 첫머리를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든 학교의 규칙, 즉, '우리들의 약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헌장

꿈을 키우는 즐거운 제황초등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교육공동체 헌장'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과정의 즐거움을 느끼며, 나와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제황 어린이는 1. 서로 믿으며 함께 합니다. 2.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3. 모두에게 차별 없이 다가갑니다. 4. 자유롭게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모두가 내 아이다'를 실천하는 제황 학부모는 1. 아이를 믿고 기다려 줍니다. 2. 학교 일에 적극 동참합니다. 3.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4. 함께 공부하며 성장합니다.	제황 교직원 은 1. 먼저 웃습니다. 2. 진심으로 듣습니다. 3. 믿고 기다립니다. 4. 함께 실천합니다. 5. 서로의 빛깔을 살려줍니다.
---	---	---



꽃나루학교 약속

학교는

아이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넓고 아늑한 놀이터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찾고 발견하도록 지원하고 채워주는 알뜰한 배움터이다.

아이들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는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른이에게 예의를 다한다.
삶에서 배움을 찾고 그 배움을 즐기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다.

학부모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배운다.
'내 아이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라는 시각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배움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학교·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약속하고, 이를 지키며 서로 존중·협력하는 학교문화를 꽃 피웁니다.



교육을 위한 약속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학교는 훌륭하고 멋진 수업을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의 행복하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화려한 실적을 만들기 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교육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가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교직원들은 즐겁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학부모와 함께 참된 교육을 만들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교육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워크숍을 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약속하고 교육과정에 담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첫머리에는 '교육과정 편성의 기저', '교육과정의 배경' 등 천편일률적인 상위기관의 법적인 근거보다 교육 본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고민하고 합의한 '우리들의 약속'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02. 우리 학교의 비전을 담은 교육과정

우리 학교의 비전은 우리 학교가 나아갈 뜻과 길 그리고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즐김과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꽃나루학교」

즐김과 나눔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화제초등학교는 학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존 중하는 자율적인 학교로서 즐겁게 배우고 체험하는 건강한 어린이(즐김), 배려와 어울림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어린이(나눔)를 기르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꽃나루[화(-꽃 화), 제(-나루, 건널 제)]라는 말은 '사람이 꽃을 건넌다'는 화제의 한글 표현으로 아이들이 저마다의 고운 빛깔로 자라 그 향기를 널리 퍼트린다는 의미를 담은, 꽃나루 교육공동체의 교육 비전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꿈과 의지를 모아 함께 결정한 학교 교육 비전과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한 문장의 비전에는 교육공동체의 열정과 노력, 고민과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전에 담은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교육과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과 올림을 주는 학교 비전의 예

소담초	홀로서기와 함께하기로 삶을 가꾸는 교육
남한산초	배움과 나눔으로 삶을 가꾸는 학교
풀무학교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교육
간디학교	한 영혼이 자라면 온 세계가 성장한다.
심화초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배움의 공동체
거산초	스스로의 성장을 돕는 학교, 자연을 닮아가는 인간 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비전은 교육공동체가 교육을 바라보는 지점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학교 비전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학급 아이들과의 수업 장면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우리 학교 역사가 담겨있는 교육과정

학교 역사와 성장 과정이 담긴 학교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가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교가 걸어온 길

물방울이 모여

우리 학교는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72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 2000년 초반부터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동창회는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교직원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부모, 지역민, 동창회는 기금마련과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낮에는 두 발로 직접 뛰어다니고 저녁에는 서로 머리를 맞대었다.

시냇물을 건너고

이러한 노력이 언론과 입소문으로 이어져 2006년부터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해 한적하던 잔디운동장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제법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자연을 많이 접하지 못하던 시내 아이들은 강이 보이는 굽이진 길을 따라가다 들판이 보이는 마을로 접어들어 만나게 되는 작은 시골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환호하였고 학부모들은 교사의 관심을 듬뿍 받고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만족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한가족처럼 오순도순 지냈고 2009년 교육부 지정 전원학교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과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어우러져 해마다 학생 수가 증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후략-

과거를 통해 학교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교육철학의 바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혁신의 과정

기간	추진 내용
1기 2010.~2014. 만들고 심고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안목으로 교육과정 꿰기 • 교육과정 실천과 평가 프로그램 및 나눔 프로그램 마련하기 • 교육과정을 안정화 시키고 수업 연구에 집중하기 • 교육과정 안정과 더불어 학생 연구에 집중하기 • 예술수업, 학생 동아리 교육과정 거둬나기와 교과통합의 안목을 학생과 함께 나누기 • 수업 나누기, 독서교육, 학생평가, 체험학습 중심
2기 2015.~2018. 이어가기 더 나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작품 읽기' 정리 및 다듬기 • '함께 배움' 수업 함께 보기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안정적 운영 • 학생인권선언문 마련과 실천 • 한옥도서관 안정적 운영 • '이야기와 토론' 연구 • 3주체(학생,교사,학부모) 공동 실천 활동
3기 2019.3~ 다시 새롭게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새롭게 들여다보기 • 미래형 학교교육과정 재설계 및 중점 교육활동 제안 •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 모델로 지역 혁신 학교의 거점 역할 수행 • 지역 혁신학교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통해 혁신교육 확산 • 미래형 학교 모델에 대한 탐색

학교교육과정을 실천한 과정과 결과의 발자취를 기록하면, 학교 역사는 학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역사는 우리 학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맥락이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긴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게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04. 우리 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는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은 우리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기때, 편성 전에 학생들의 삶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이야기 속에서 학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2019, '함께'만들어가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 교육과정 성찰 및 워크숍 세부 내용

1. 학생 기초조사 결과

- ▶ 학교에서 행복을 느낀다(약 60%)
 - 행복의 주요 이유 : 놀이시간, 원만한 친구 관계
- ▶ 인사, 친구관계, 학습습관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
- ▶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

2. 학부모 기초조사 결과

- ▶ 학부모가 바라는 교사상 : 바른 인성, 예절교육, 아이들의 자신감과 리더십 존중, 아이들의 생각과 인격 존중, 학부모와 소통 및 상호작용
- ▶ 학교교육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87%이상)
- ▶ 학년별 프로젝트 수업의 만족도가 높음
- ▶ 기초기본 교육과 창의 인성교육 강조
- ▶ 생활 교육 중 언어 예절, 스마트폰 교육 필요
- ▶ 평가 시기와 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1. 토론 주요 내용(학생)

- ▶ 우리 학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이 없도록
 - 따뜻하고 고운 언어 사용
 - 깨끗하고 조용한 급식소
- ▶ 내각 원하는 수업은?
 - 요리, 수영, S/W, 다양한 체육 수업, 야외 체험 수업, 동식물 기르는 수업 등
- ▶ 내가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 교실에 스마트기기 설치, 청소용구함 교체, 동아리활동 강화, 블라인드 교체, 연못 꾸미기 등

2. 토론 주요 내용 (학부모)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해주면 좋겠음. 학급 밴드 등을 이용한 소통 강화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방향과 근거가 됩니다.

학생들의 삶의 모습에서 학교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찾다.

행복을 가꾸는 우리

◎ 도전활동(영남알프스 종주)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풍족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며 온실 속 화초처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이 부족하여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보니 힘든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쉽고 재밌는 일만 찾아 하려고 한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강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는 경험을 심어주고자 도전활동(영남알프스 종주)을 계획하게 되었다.

▶ 세부추진계획

일시	추진내용	비고
3월	- 도전활동 취지 설명 및 추진계획 발표	교육공동체토론회
4월	- 종남산 산행하며 인내심 기르기	전교생, 학년 수준 고려
5월	- 구만산 산행하며 인내심 기르기	
9월	- 천태산 산행하며 인내심 기르기	
11월	- 영남알프스 천황산 종주	4~6학년

학생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배움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학생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정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학교 비전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학급 아이들과의 수업 장면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 6년을 이야기하는 학교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에게는 6년을 이야기하는 학교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은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위계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복초 교육과정 로드맵

학년	영역	국어	수학	학년별 프로젝트	온작품 읽기	예체능	생활지도	기타
1학년		• 바르게 인사하기 • 한글 해득 • 집중하며 듣기 • 띄어 읽기	• 수의 순서(1-99) 읽고 쓰기 • 한 자리 수의 덧셈 뺄셈 • 시각 읽기(시, 30분)	• 다양한 놀이 체험 • 계절 프로젝트	• 책에 대한 흥미	• 리듬악기 기본 주법 • 줄넘기 양발모아뛰기 • 선긋기 • 물칠, 가위질 하기 • 태복산 둘레길 걷기	• 실내에서 걷기 • 경계교육 • 가방정리 • 교실, 책상 바르게 사용 하기	• 교가, 애국가 외우기 • 1학년 맞이 프로젝트(자매결연)
2학년		• 음독법 • 자신 있게 말하기 • 경험한 일 쓰기	• 구구단 외우기 • 시각 읽기	• 나 · 가족 · 이웃 · 우리나라 프로젝트	• 책놀이 • 책 읽어주기(교사/학생)	• 양발모아 줄넘기 • 태복산 둘레길 걷기	• 수업시간 규칙 • 급식소 예절 • 개인위생 • 사물함 정리	
3학년		• 국어사전사용법 익히기 • 중심 내용 찾기 •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표하기	• 사칙연산(기본)	• 봉림동 역사탐방 프로젝트	• 책 읽는 습관형성	• 리코더 7음계 운지법 및 텅잉 익히기 • 태복산 등산(정상)	• 나의 잘못 인정하기 • 진심으로 사과하기	• 학급자치 새싹피우기 • 한글자판 100타 • 인터넷 검색능력
4학년		• 회의 방법과 절차 익히기 • 제안하는 글쓰기	• 사칙연산 완성 • 각도 측정 및 각도 그리기	• 중심지 답사 •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참여	• 공공도서관 방문 및 이용해보기	• 리코더 연주(울림, 내림) • 태복산 등산(정상)	• 감정 조절	• 학급자치 꽃피우기 • 한글문서 작성하기
5학년		• 토의 토론 방법 익히기 • 내용 요약하기	• 약분과 통분 •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구분하기	• 교실 속 마을활동(경제시스템)	• 독서토론하기	• 단소 또는 소금 • 소리 내기	• 비속어/은어 사용하지 않기 • 자학년과 사이좋게 지내기	• 전교자치활동 • 프레젠테이션(PPT) 구성 능력
6학년		•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말하기 • 주장하는 글쓰기	•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 원의 넓이와 원주	• 졸업 프로젝트	• 독서 토론하기 • 1학년 자매결연 책읽어 주기	• 도림 미술관 견학 • '아리랑' 단소 연주 • 정병산 등산	•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 • 표용력과 리더십 갖기	

학생의 발달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학년 중점 교육을 편성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6년 동안 연속된 교육과정을 실천합니다.

◎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는 배움중심수업

- 1.2학년군 : 학교는 즐거워, 공부는 재미있어
- 3.4학년군 : 우리가 주인 되는 발자국 남기기 '우주발자국'
- 5.6학년군 : 내가 보는 나, 우리가 만드는 세상

배움중심수업을 대주제로 하여, 학년군 단위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펼칩니다.

학년
중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기초기본이 시바른 1학년	밝고 바른 심성으로 성장하는 2학년	다양한 만남으로 성장하는 3학년	일상다반사 행복한 4학년	나를 알고 꿈을 키우는 5학년	배려와 존중이 샘솟는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과 함께 자라는 1학년 놀이로 바르게 커가는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책 읽는 즐거운 교실 놀이로 자라 나는 우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만남 프로젝트 온책으로 만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을 나눴어요 마음을 건넰어요 여기 살아 행복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칭찬과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 배움으로 꿈을 키우는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알아가는 역사 교육 함께 실천하는 세계 시민교육

기
대
상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학교상
배움의 주인이 되어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	열정과 소통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교육동반자로서 더불어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학교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학년의 목표를 선정하고 중점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학교에서 6년 동안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년간의 배움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06. 누구나 쉽게 보는 학교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의 독자는 교사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 방향 해설

우리가 담아내야 할 소담교육은 다음과 같다.

'홀로서기'란 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때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주변을 살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며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내 안의 씨앗을 피워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된 '함께 하기'를 이룰 수 있다. 서로를 인정하며 그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한걸음 나아갈 때 옆을 돌아보고 때로는 손을 내밀고 때로는 아픔을 나누기도 하며 타인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당당한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며 함께 나누고 서로 베푸는 것이 함께하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방향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결처리

1. 결석의 종류

- 가. 질병
- 나. 미인정
- 다. 기타

2. 지각조퇴결과(등교시간 8:20~8:40)

- 가. 지각: 1교시 시작 이후 등교
- 나. 조퇴: 마지막 수업 마치기 전 하교
-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 고의적 거부

3. 출석인정결석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지는 행복한 놀이시간

우리 학교는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시간을 마련하여 친구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학생들의 관계, 체력향상, 그리고 학습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릴 때의 놀이시간은 평생 가지고 갈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놀이시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규칙,
질서 지키기 등의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 쉬는 시간 및 놀이시간을 매일 140분 이상 확보
- 안전하고 질서를 지키는 놀이를 위하여 교사가 항상 동행하여 지도 (교사 순번제 운영)
- 6남매 활동의 하나로 놀이규칙 정하기, 친구 도와주기 등의 민주 시민교육 실시



특색교육활동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함축하여 나타낸 표보다 편안한 줄글, 친근한 화면 구성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경청과 소통의 공동체로서 교육의 언어가 단절적이지 않고 교육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참여를 끌어내어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는 출발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Chapter 05

학교교육과정 내비게이션

학교 교육공동체가 만나
교육을, 학생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N명의 사람이 만나면
N개, 그 이상의 생각이 반짝입니다.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갑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꾸준히 찾아갑니다.

「

」

학교 사례 I

「

」

Step 1. 학교철학과 비전을 세웁니다.

A 학교철학 세우기

학교철학 세우기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 현실의 구체적인 사안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반응하여 학교의 상을 세우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므로 학교교육의 구심점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철학은 학교 구성원들의 신념체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기존의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 학교 실태 조사에 의한 학교교육목표 수립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철학이 제일 먼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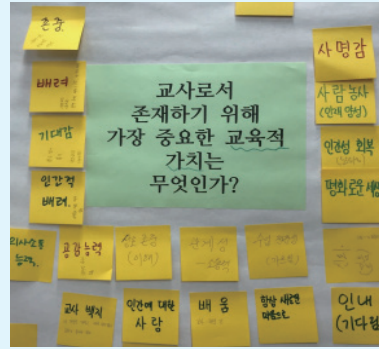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성찰질문)

-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현재와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 교사로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 궁극적으로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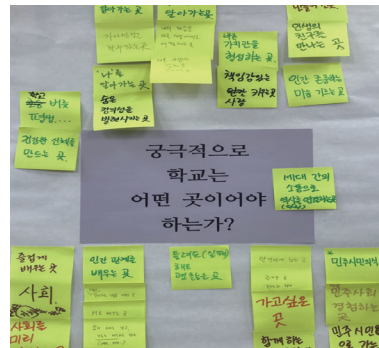
☑ 학교철학 이렇게 세워 볼 수 있습니다.

- 월드카페 형식으로 성찰 질문에 대해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 호스트가 성찰질문 발표합니다.
-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생상, 교사상, 학교상을 공통 키워드로 추출합니다.
- 학생·교사·학부모·학교상의 가치에 대해 유목화합니다.



☑ 예) 창원 한들초의 학교철학 세우기

- ☑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 ☑ 교사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존재이다.
- ☑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며 지혜를 배우는 곳이다.



B

학교비전 만들기

학교 비전이 왜 중요할까요?



-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안건협의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전이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비전이 중요합니다.
- 합의된 비전을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학교철학 vs 학교비전
학교 철학: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학교 교육상(想)
학교비전: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실천 전략

효과적인 비전은?

- 교육의 미래상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한 호소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간결하고 명료하여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행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교육공동체가 비전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합니다.

예) 참 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남한산초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학교 -방교초



비전 만들기

1. 긍정적 가치 실현의 씨앗단어를 활용하여 존재에 대한 가치 적어보기

격려	공감	기여	관계	배려	봉사	사랑	수용
예외	협력	정의	존중	책임	친절	상태	배움
지혜	창의성	통찰	공동체	열정	겸손	긍정	끈기
성실	성찰	여유	일정	자존감	정직	감동	깨달음
꿈	몰입	보람	행복	희망	소통	행복	보람
존중	민주	책임	평등	여유	자유	즐거움	평화
건강	나눔	배려	돌봄	돌봄	자부심	인권	신뢰

〈긍정적 가치 실현의 씨앗카드〉

2. 포스트잇에 2~3가지 적고, 모둠에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유목화하기
3. 모둠에서 나온 가치를 전체 공유하기
4. 모둠별로 나온 가치를 모아 전체 유목화하기
5. 공통키워드 추출하기

학생은 ... 존재이다.	교사는 ... 존재이다.	학교는 ... 곳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사로서 존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꿈, 배움, 존중	성장, 성찰, 배려	민주, 행복, 소통
배움	성장	행복

공통 키워드를 추출하여 적은 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추출한
핵심 가치로 비전을 세우고 핵심가치와 세부가치 및 교육목표를 추출



비전

배우고 성장하며 참 삶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Step 2. 학교교육과정 체계세우기

A 교육과정 공간 확보하기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절차에서 학교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학교교육 비전, 교육목표, 주요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단계 무엇이 어려운가?

덜어내고, 빼야 할 것 찾아보기



지난 학교와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효과나 내용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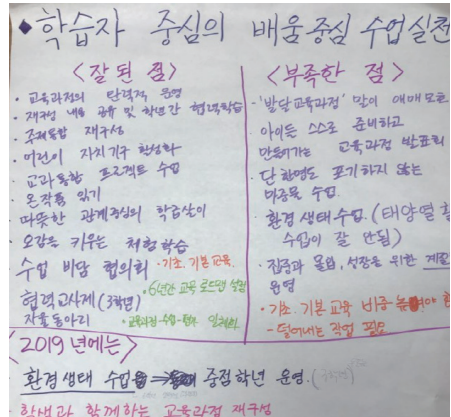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구색 맞추기식의 짜임이나 매년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통한 과감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우리 학교교육과정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 불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체크하거나 메모해 봅시다.
- 체크하거나 메모한 부분을 모둠에서 서로 생각을 공유합니다.
- 교육과정에 반영할 부분을 다함께 토의를 통해 결정해봅시다.

2단계 무엇이 필요한가?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 찾아보기

지난 학교 교육계획과 교육활동 중에 부족했던 부분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칩니다.



3단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기

학교 학년 단위에서 협의한 내용을 정리, 계획에 반영하기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학교·학년 단위에서 협의하고 예산을 검토한 후에 이를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또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체제와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간략하게 제시하여 학년 및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보다 많은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예) 운영내용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실천과제	추진내용
학교전체의 협력적 교육활동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 학년(급)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재구성 내용 공유 및 학년 간 협력학습 : 상호 배움의 기회 확대
일관성과 다양성이 있는 6년간의 교육 로드맵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성취학습요소를 고려한 학년별 연계 프로그램 구축 학년별 학생 발달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교사수준 교육과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통합으로 학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중심 수업 전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의 실현

나. 배움 중심 수업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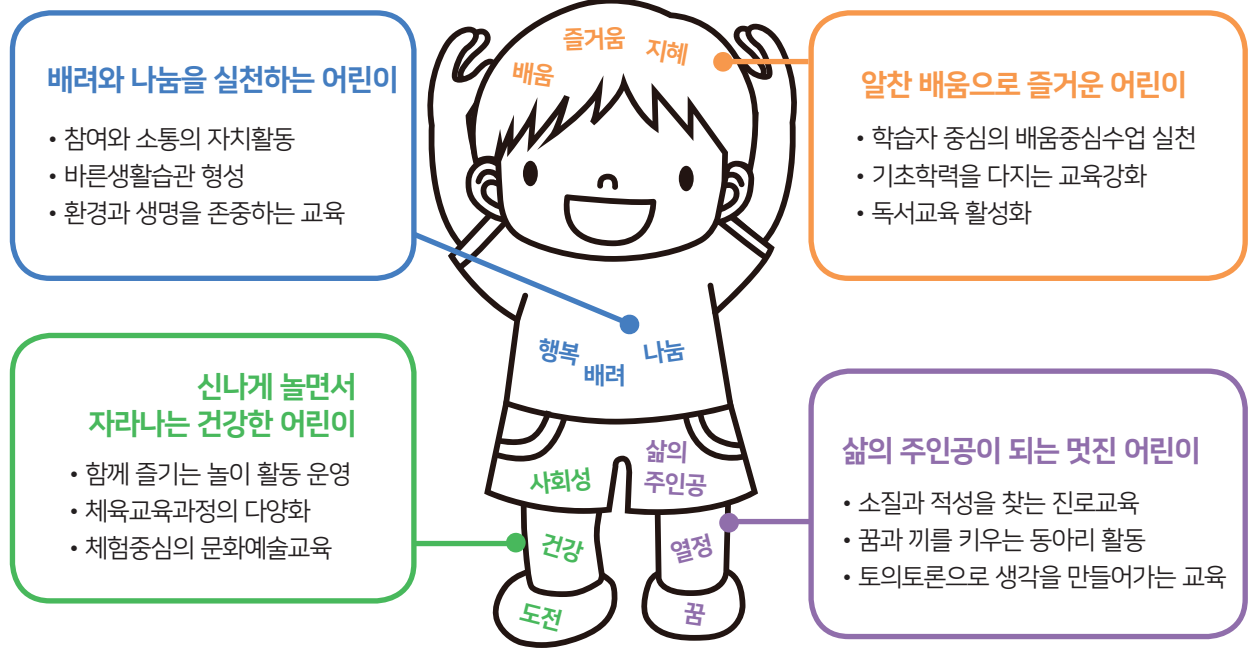
실천과제	추진내용
배움중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학생중심 수업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과 실천을 배우는 교과통합 프로젝트 학습 실천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내는 토의·토론 수업 온작품으로 깊이 있는 책임기 수업
교육공동체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뜻한 관계중심의 학급 삶이 실천 오감을 깨워 감성을 키우는 체험학습 강화 학생중심의 학교공간변화 프로젝트를 통한 민주주의 덕성 함양
함께 성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공동체의 예산 수립 및 실제적 운영 수업비담 협의회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수업 나눔 및 공동수업기획 학기별 교육과정 컨퍼런스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B 학교교육과정 조망도 그리기

선생님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조망도 (Big picture)를 가지고 계시나요?
 학교교육과정을 조망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위해 포함해야 할 교육활동의 목록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을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비전을 중심에 두고, 이에 해당하는 핵심가치를 뽑아냅니다.
- 토론을 통해 핵심가치를 찾습니다.
- 세부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설정합니다.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활동에서 버릴 것과 수정할 것, 첨가할 것 등 앞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알기 쉽게 이미지화 또는 도식화하여 나타냅니다.

"우리학교 어린이상 :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어린이"



▲ 예) 학교교육과정 조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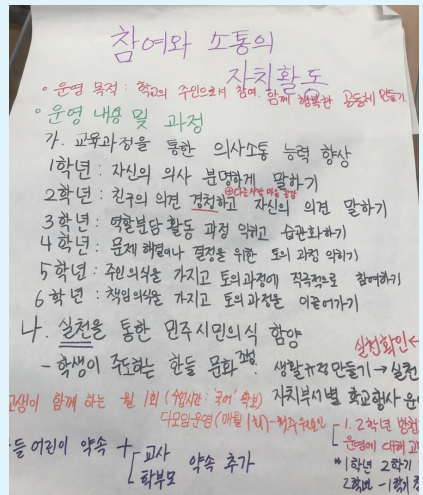
C

제안서 쓰기

학교 주요 교육활동에 대해 '제안서 쓰기'를 통해 학교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일관된 교육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쓰기

- 우리 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을 제시하고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 교육활동별로 관심있는 교사들끼리 모입니다.
- 일정한 시간을 주고 논의를 하여 교육활동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 교육활동 제안서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수정 보완합니다.
- 수정 보완된 교육활동은 담당자가 정리하고, 교육과정 담당 부장이 최종점검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합니다.



▶ 제안서에 제시되어야 할 내용

- 목적 및 필요성, 방법, 학년별 실천전략, 지원(예산포함), 유의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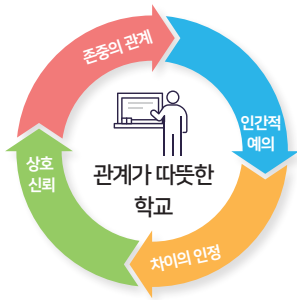
▶ 제안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체 공유와 합의를 통해 최종 수정해야 합니다.

Step 3. 2월 교육과정 구성주간

A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의 관계 맺기 및 우리 학교 주변 마을나들이

2월 교육과정 구성주간에 가장 먼저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인사이동으로 우리학교에 새로 오신 분, 복직하시는 분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신규교사처럼 걱정반, 기대반으로 오셨을 겁니다. 같은 교육공동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맛이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가 탄탄한 공동체에서
양질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주간에는 서로 교육을 이야기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편안한 관계를 맺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만남과 친숙함이 필요합니다.



- 관계맺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우리 학교에 필요한 관계 맺기 방법이나 기술을 고민하고 준비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 교사연수의 주제로 공동체 놀이를 활용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예산을 확보하고 다과를 준비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 전 직원들과 함께 학교 주변 마을 나들이를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주변여건을 직접적으로 알아갑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마을환경을 바탕으로 1년의 학년(급)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B 새 학년도 교육과정 구성주간 운영

전년도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전 교직원 전체가 공유하고 협의하며 최종 점검합니다. 새로 온 교직원과 함께 학년(급)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자료를 안내하고, 학년(급)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주제별 협의를 합니다.

2019. 새학기 교육과정 구성주간 안내자료

한들초등학교

월/요일 교사 시간	2월 18일(월)	2월 19일(화)	2월 20일(수)	2월 21일(목)	2월 22일(금)
	월요일 (한들초 도서실)	화요일 (한들초 과학실)	수요일 (한들초 과학실)	목요일 (학년연구실)	금요일 (학년연구실)
1 08:40 ~ 10:00	연수등록 및 준비 - 학교장 인사 - 인사나누기	동학년 전문직학습공동체 조직	2019학년도 학년 운영계획세우기	학급(년)교육과정 편성	학급(년) 교육과정 편성 -연간 진도표 작성
2 10:00 ~ 10:50	학교교육과정 만들기1 -2019학년도 학년 및 업무 분장 안내 -업무 분장 수정 보완 및 희망 (진행)창원한들초 교감 강경	교사수준 교육과정 알아보기	과정중심수시평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교육철학 나누기> ① 교육과정읽기 ② 목표수립을 위한 생각나누기 ③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 세우기	
3 11:00 ~ 11:50	학교교육과정 만들기1 (진행)창원한들초 교감 강경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습하기	과정중심수시평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년 부장	
11:50 ~ 13:00	정식시간				
4 13:00 ~ 13:50	학교교육과정 만들기2 -2019학년도 학교교육과정 및 행복학교 운영안내 창원한들초 교사 이명원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습하기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문화	학급(년)교육과정 편성	학급(년)교육과정 편성 -평가 계획 수립 -평가 기준안 작성
5 14:00 ~ 14:50	학교교육과정 만들기2 -학교 비전과 교육철학 공유하기 창원한들초 교사 이명원	교사수준 교육과정 만들기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문화	<교육과정구성하기> ④ 성취기준 및 맵핑 읽기 ⑤ 중점 교육 관련 성취기준 선정하기 ⑥ 연간교수학습 계획세우기	
6 15:00 ~ 15:50	학교교육과정 만들기2 -학급(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자료 안내 -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 한 주제별 협의 창원한들초 교사 이명원	교사수준 교육과정 만들기	초등자치,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민주주의		
7 16:00~16:40	- 기타 협의 및 정리	업무인수인계	학년 교실이동 및 정리	학년 부장	학년 부장

-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반, 학년 교육과정 운영 개요, 업무팀의 부서별 교육활동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공유합니다.
- 이 자리는 교사뿐 아니라 교무행정 실무원, 행정실장 학교 교직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닌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해주는 일이며, 어떤 의미와 바탕을 지닌 활동인지 함께 공유하고 업무를 지원해 주고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서로의 소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 과정을 통해 공유된 내용이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문제가 되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수정되기도 합니다.
- 새학년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연수도 구성 해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동학년 협의회를 통해 새학년도 학년(학급)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Step 4. 학부모와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 플랫폼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행복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들교육과정 플랫폼'을 교육과정 설명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운영해 보았습니다.

시간		플랫폼 안내			
시작	종료	플랫폼 분과			
17:05	17:30	출발! 2018. 한들행복드림팀! (행복학교)	2015. 개정교육과정과 이렇게 달라졌어요	창원한들 학생자치 속으로 (자치 및 동아리활동)	공부는 মনে대로 된다! (학습지도)
		이정아 선생님	이명원선생님	김평주선생님	조미선 수석님
		6-1교실	3-1교실	3-4교실	4-1교실
		우리아이, 책 읽는 즐거움에 빠지다! (독서교육)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 수시평가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회복력 생활교육 (생활지도)	2018 협력형 마을학교 봉림동 마을학교 '한들산들'
		이은숙선생님	강정교강선생님	배영국선생님	이순자 마을학교대장님
5-1교실	3-2교실	3-3교실	6-2교실		

한들 교육과정 플랫폼 장소 이동 (17:30~17:35) : 장소 이동 방송안내

교육과정 설명회 사전 설문조사시간에 학부모님께서 사전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분과를 모아서 올하는 8개 분과를 운영해보았습니다.
- 2015 개정교육과정, 과정중심평가, 학생자치, 학습지도, 아이들 독서교육, 행복학교 운영, 동아리운영, 마을학교 운영 8개의 플랫폼 분과를 25분간격으로 2번 나눠서 운영해보았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한 분과를 만들어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몰랐거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 학부모의 요구를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Step 5. 교육과정 컨퍼런스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천을 함께 나누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년교육과정을 문서화하여 내부결재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년교육과정의 존재목적인 법적 장부와 문서화로서의 성격보다는 학년교육과정의 실질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교육과정 운영의 실천적 내용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 학년 별 교육과정 공유와 피드백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 교육과정 컨퍼런스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걸쳐 진행합니다.

- 학기초는 주로 학년 교육과정 운영계획(프로젝트 또는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등)을 나눕니다.
- 한들초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학년별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려집니다.
- 학기말에는 학년(급)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운영 소감 나누기,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학년군 교육과정 체제에서 우리학교 학생의 학년 발달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은 채우고, 강화시켜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Step 6. 1학기 교육과정 되돌아보기

A

워크숍, 왜 필요할까요?

워크숍... 말은 쉬운데 막상 담당자로서 워크숍을 진행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처음부터 막막합니다. 워크숍은 업무담당자인 연구부장 또는 교육과정운영부장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두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지는 것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
그대가 듣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그대가 이해하는 것

내 생각과 그대의 이해 사이에 이렇게
열 가지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시도를 해야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에서

워크숍은

다같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모여서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소통보다 쌍방향적 소통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습니다.

대화로 공유하면서 교직원 스스로 선택할 때 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참여와 의사소통,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소통, 이 과정이 창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워크숍을 통한 즐거움과 재미를 알게 하고자 한다면

**기획부터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B 워크숍,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을 하기 한 달 또는 2주 전에 워크숍 기획 TF팀을 꾸려봅니다. 워크숍에 대한 기획부터 함께 고민한다면 학교구성원들의 역량이 모두 성장할 것입니다.

예) 창원한들초에서는 'B&A 콘텍스트 컴퍼니'라는 워크숍 기획운영팀을 운영합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여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는 전문가적 방법을 모색하는 팀입니다.



함께 모여 1학기 교육과정 설문조사 또는 협의자료를 바탕으로 우리학교 교육과정에 보완·반영해야 할 점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맥킨지 문제해결 컨설팅이라던지 민주적인 의견 조율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워크숍 기획 TF팀 구성원들은 워크숍이 열리는 날 각 모둠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면서 각 모둠 교직원들의 생각교환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자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C

워크숍 마음열기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교직원간에 팀워크를 다지거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로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워크숍의 진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열기 1 팀빌딩게임

마시멜로우 챌린지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높은 탑 쌓기!

장의적으로 가장 높게 쌓은 팀이 승리

정해진 시간 안에 마시멜로우와 스파게티 면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 팀워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시멜로우 챌린지에서 우승하는 팀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력'입니다. 이 챌린지의 우승 원인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이야기 나누며,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 머쉬멜로우 1봉지, 스파게티 면 30개

- ① 제한시간 10분을 줍니다.
- ② 제한된 시간 안에서 스파게티 면과 머쉬멜로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탑을 쌓습니다. (단, 가장 높은 곳에 머쉬멜로우가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 ③ 10분이 되면 두 손을 놓고, 각 모둠별 탑 높이를 비교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가장 오래 버티는 탑을 쌓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음열기 2 물건으로 알아보는 who?

오늘의 퀴즈

물건으로 알아보는
Who?

떠든 사람
(물망초하기)
구명 - 신홍학님
원뿔 - 민지님



바쁜 학교 일상속 학교에서 하루의 반 이상을 함께 나누는 교직원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개인의 물건 하나씩 들고 와서 서로 섞어서 모둠별로 물건을 재배분 해주었습니다. 물건 맞추기 놀이를 통해서 우리 교직원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D 독서토론을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기

✔ 워크숍 시간에 왜 독서토론이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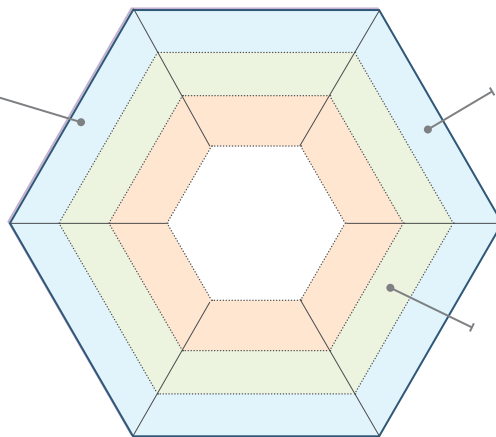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에 독서토론을 하면서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워크숍 사전 조사 결과, 아이들 생활지도를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많았고, 생활지도를 위한 실질적인 외부조건의 방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 독서토론 어떻게 진행하나요?

비경쟁독서토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논쟁을 벌이는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존중하면서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독서토론 방식입니다.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에 여러 곳에서 두루 이용하는 독서토론 방식입니다. 90분 분량의 거미줄 독서토론 방법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비경쟁 독서토론

대표질문 정해서
가운데 적고
그 질문에 대해
개인 생각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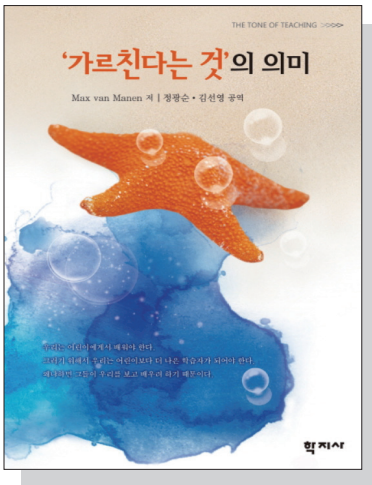


인상깊은 부분,
공감 가는 부분 적기

개별 질문
생성하고 나누기



- 책 속 구절에서 인상깊은 부분, 공감가는 부분을 각자 적고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 두 번째 칸에 적고 모둠원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 대표 질문 정하게 적고, 그 질문에 대해 개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교육 해석학적 연구의 대가 Max van Manen 이 질적 연구한 책입니다. 교육적 민감성이란 상황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 상황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예시와 일화를 통해 교육적 민감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생활하는 현장 선생님들에게 교사로서 하는 일이나 교육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얇은 분량의 책이라 2시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토론 할 때 각 챕터만 가볍게 읽고 시작하기 좋습니다.

E

'신뢰써클'로 교사 마음 치유하기

'신뢰써클'은 구성원들간의 따뜻한 믿음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활동입니다. 신뢰써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기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동체가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 '신뢰씨클'로 시작하는 워크숍

학교에 따라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업무적 지원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 힘들을 같이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 빨간 털실을 이용해서 털실을 잡은 사람이 한 학기 동안 힘들었던 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터놓습니다.
-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말할 사람에게 털실을 넘겨줍니다.
- 마지막에 털실을 잡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털실로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 몰랐던 속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울고 웃으며 마음 깊이 서로를 공감해주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다시 빨간 털실을 감으면서 연결된 실 따라 털실을 넘겨줄 상대에게 격려 또는 칭찬의 말을 해주면서 활동은 마무리 됩니다.



회전목마 토론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들 생활 지도의 힘들을 2학기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는지 실천 방안을 찾아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F 1학기 교육과정 되돌아보며, 한걸음 더 나아가기

학교교육과정 평가는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실시합니다. 1학기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2학기 준비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우리학교 교육전문가입니다.’

1학기 교육과정 및 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2학기를 위해 꼭 다 함께 협의가 필요한 부분 찾아봅니다. 다같이 모여 학교 교육전문가가 되어 모둠별로 특급 솔루션을 제시하고 발표를 통해 공유하며 협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함께 모여서 으라차차’ 워크숍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함께 논의할 문제 찾기
- 해결 방법 발표하기
- 전체 의견을 모으기
- 합의하고 선언하기
- 2학기 계획에 반영 및 실천하기

예) 우리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시트지



한울교육전문가의

특급 솔루션

2학기에 반드시 실천합니다.

진단	교직원 다모임은 다 함께 모여서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나누고 철학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업무권달 및 간단한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장회의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직원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직원 다모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원인			
해결방안모색 (브레인스토밍)			
실천적인 솔루션 제시	방법	담당자	실천일정
지속적인 성찰(점검·관리) 방안			





지수열전으로 알아보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진단



지수열전을 통해 우리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Q1. 주인지수 : 나는 ○○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나요?

Q2. 소통지수: 나는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잘 소통하고 있나요?

Q3. 관계지수: 나는 학교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요?

Q4. 민주주의문화지수: 민주주의는 합의의 문화입니다.
우리학교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Q5. 행복지수: 나는 ○○초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가요?



Step 7. 2학기 맞이 준비

A

8월 교육과정 구성주간 운영

2학기 학급(년)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개학 전에 2학기 교육과정 구성주간을 운영합니다. 이 주간 운영은 학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2학기 교육과정운영계획과 주요 평가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이중 하루는 2학기 중요한 학교행사에 대해 다함께 모여 협의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B

학년별 교육과정 로드맵 구축

“학년별 교육과정 로드맵은

우리 학교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초등학교 학령기 학생들은 발달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떠나 좀 더 넓고 큰 사회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는 1학년부터 초등학교 6년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관계의 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6학년까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학년별 교육과정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학년별 교육과정은 해당 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과 교육을 비롯한 학년의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적정화를 단위 학교의 학년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년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현실은 교과 내용과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과 조정보다는 교과별 시수 운영계획, 진도 계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년 부장의 작품이거나 전년도 학년 담당 교사들의 작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년 교육과정은 있지만 교실 현장에 실제로 구현되지 않고 교과서로 교육 활동이 구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생의 발달과 학교의 상황, 지역사회의 조건 등을 반영한 학년별 교육과정 로드맵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드맵을 통해 학년 교육과정을 수합하여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상향식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우리 학교 아이들 특성에 따른 학년 교과별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학습요소 찾습니다.



▶ 학년별 로드맵 구축을 위해 다함께 협의를 합니다.

▶ 창원 한들 교육과정 로드맵

학년	영역	교과	수업	학년별 주요역량	온시온기 일기	예제문	생활지도	기타
1학년		• 체육계 인사하기 • 동물 놀이 • 동물에게 놀기 • 놀이 놀기	• 우리 몸이 500 원짜리 짜기 • 동물 놀이 체험 • 동물 친구 만들기 • 사인 만들기 (30분)	• 다양한 놀이 체험 • 계절 프로젝트	• 책에 대한 흥미	• 동물 친구 2명 만들기 • 동물 친구와 놀기 • 동물 친구와 놀기 • 동물 친구와 놀기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교구, 영구기 • 놀이기구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2학년		• 동물 놀이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구구단 맞추기 • 사인 만들기	• 나, 가족, 이웃 • 우리 나라 프로젝트	• 책이 • 책 읽기 프로젝트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3학년		• 동물 놀이 놀이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사인 만들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책 읽기 프로젝트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4학년		• 동물 놀이 놀이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사인 만들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책 읽기 프로젝트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5학년		• 동물 놀이 놀이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사인 만들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책 읽기 프로젝트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6학년		• 동물 놀이 놀이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사인 만들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동물 놀이 놀기	• 책 읽기 프로젝트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동물 친구 놀이

▶ 우리 학교만의 로드맵을 만들고 수정보완 해합니다.



- "WHAT"에 대한 고민에서 "WHY"에 대한 고민으로 관점을 바꿉니다.
 -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합니다.
 -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학년별 학생의 발달단계입니다. 발달단계에 적합한 활동을 선정해야 합니다.

Step 8. IPA를 활용한 우리 학교 진단

A 12월 교육과정 구성주간 운영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는 1970년대 말에 등장한 다속성 모델(Multi-attribute Model)을 기초로 하고 있는 분석 기법으로 중요도와 실행도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중요했던 부분이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한 중요도				제외 중인 학교에서의 실행도(평가외)			
	정리 중요하지 않다	별교 중요하여 않다	양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정리 실행하지 않다	별교 실행하지 않다	양간 실행되고 있다	매우 실행되고 있다
1 학교철학공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민주적인 학교운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배움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지역, 학부모와 소통·협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학생자치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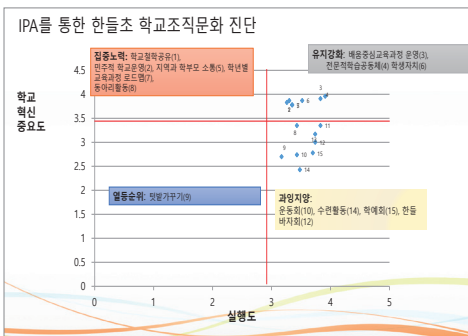
1단계

IPA 설문지를 활용해 우리학교의 주요 교육활동 및 행사, 학교문화 등 항목을 반영하여 설문 조사를 합니다.



2단계

각 항목의 응답의 평균값을 산출하면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비교적 빠르고 쉽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우선 순위 항목을 도출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학교교육과정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실행도가 낮은 항목들에 집중하여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B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토론회

학교 주도적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서를 받아 다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 2020. 창원한들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안서

순	항목	내용
1	영역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업무 지원(), 행정 지원()
2	주제	공개수업 운영
3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현행대로 1,2교시 전담/저학년/고학년 수업 후 학부모 연수(필요 시) 날짜: 예. 4월 중순(18일 목요일) ▶ 동료장학 공개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공동수업 설계 및 공개 - 학년별 적절한 주간 선정하여 그 주간에 공동수업 공개 - 공동수업 예1. 학년에서 한 차시 수업을 공동으로 설계하여 1반 담임이 먼저 공개 후 협의 및 보완 -> 2반 담임이 공개 수 협의 및 보완 -> 모두 공개 후 최종 협의 - 공동수업 예2. 특정 단원을 정하여 함께 협의하여 설계 후 1차시는 1반 수업, 2차시는 2반 수업 등의 방식 수업 협의 방법 - 수업비담 협의 후 나온 질문에 대해 토의·토론하고 학년별 또는 이질집단으로 석인 소그룹별로 비담협의에서 나온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심층 연구 후 결과 발표
4	제안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동료장학 공개 수업을 원하는 시기에 공개해서 수업자는 좋았던 점이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번거롭게 매달 복잡한 절차를 처리한 것에 비해 수업 공개 문화 확산 및 동료성 형성은 그다지 진척이 없었으므로 동학년 중심의 공동수업 설계 및 실행을 통해 동료성 형성 및 수업 공개 문화 확산 ▶ 수업비담 협의 방식은 좋으나 참가자들의 수준이 균질집단이면 뚜렷한 발전이 없고 그저 협의로 끝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업무별 부서별로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제안서를 받습니다.
- 제안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혀 함께 공론화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교직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년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직원 토론회

내년도 운동회 운영방식, 학예회, 바자회, 동아리 발표회, 현장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1학년 적응 활동 운영, 교육과정 설명회, 학습준비물실 운영, 학교 예산 운영 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교직원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 교육과정 중심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들이 참가하는 교육과정 중심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해 학사일정, 학교 행사, 등 내년도 학교교육과정의 큰 틀을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구성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갑니다.”



「

」

학교 사례 Ⅱ

「

」

[새로운 구성원과 마음 나누기]

- 나를 알고 너를 알기: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
-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되새기기

A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DISC 성격유형검사로 나의 유형 알아보기]

• 서로 다른 행동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특징을 알고 학교 내에서 함께 활동함에 있어 각자의 성격행동유형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학교와 학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유형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공유하기: 새로운 구성원과 마음 나누기]

- 올해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우리 학교 속에서 나의 도전, 즐거움, 성장
- 공연하기: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되새기기
- 전입교원: 나에게 새로운 학교, ○○학교란?
- 기존교원: 나에게 올해의 ○○학교란?

A 올해의 도전, 즐거움, 성장 [질문 보드게임]



새로운 구성원과 학교운영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그 속에서 기대 되는 즐거움,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그냥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재미있는 보드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 하면 더 쉽고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공감되는 것은 더 깊이 이야기 나누며 학교의 비전과 운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세우기]

-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공언하기
- 학부모현장 만들고 공언하기
- 학생현장 만들고 공언하기
- 교직원현장 만들고 공언하기

B **우리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 그리고 약속 만들기(2016)**

학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나누는 것은 학교운영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학교교육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우리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공언합니다.

함께 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제항 어린이는

1. 서로 믿으며
함께 합니다.
2. 끈기있게 노력합니다.
3. 모두에게 차별없이
다가갑니다.
4. 자유롭게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모두가 내 아이다'를
실천하는 학부모는**

1. 아이를 믿고,
기다려줍니다.
2. 학교 일에 적극
동참합니다.
3.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4. 함께 공부하며
성장합니다.

제항 교직원은

1. 먼저 웃습니다.
2. 진심으로 듣습니다.
3. 믿고 기다립니다.
4. 함께 실천합니다.
5. 서로의 빛깔을 살려
줍니다.

1

[함께 도전한다] 어린이헌장

- '우리학교 어린이는 어떠해야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핵심 가치 낱말이나 실천문장을 학급 안에서 함께 생각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기
- 각 학급별로 모은 의견 이꿈이에게 제출하기
- 이꿈이들은 전체 학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향 어린이상 만들기



2

[모두가 내 아이다] 학부모헌장

- 아이들의 어린이헌장을 읽고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지원 고민하기
- '우리는 어떤 학부모여야 할까?'
- 학교의 교육공동체로서 우리의 도전과 성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공언하기



3

[함께 실천한다] 교직원헌장

- 학교교육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교육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는 동료로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공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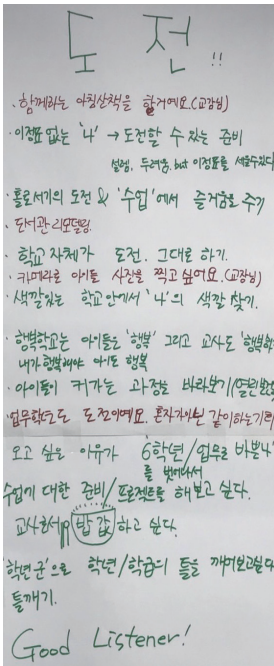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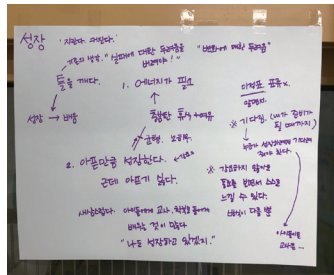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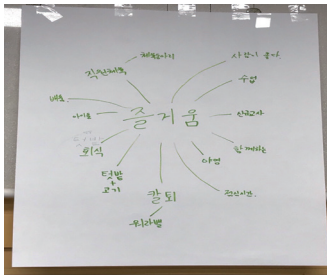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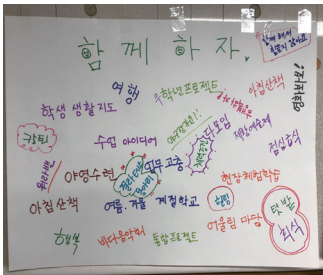
4

- 연간 교육활동이 끝난 후 학교 비전과 공동체 약속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 이야기 나누기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공유하기]

-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공유
- 각 현장 내용 공유
-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C 함께 하는 구성원과 공유하는 비전과 약속



“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학교에서의
일년살이를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곳을 바라보는 동료로서
한 학급의 담임으로서
자신을 살펴보고
목표를 정합니다.

”

[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나누기]

- 교육중점 공유

D 숲 그리고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마을나들이

학교가 살아가는 마을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장을 알아갑니다.



아이들이 산책을 가는 산길을 함께 걸어보며 마을이 교육활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숲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이야기 나누어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와 산딸기를 따먹을 수 있는 곳도 알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길을 뛰어 내려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으로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 학년도에 이루어졌던 프로젝트 수업도 이야기 하면서 교육과정의 일련의 흐름에 대해 현장을 직접 보면서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학교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면 진정한 '마을과 아이들을 담은 교육 과정'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학교교육과정의 핵심가치 나누기
- 학교의 핵심가치에 따른 교육목표, 실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교 중점교육활동
- 학년군 중점교육활동 및 학년(급) 교육과정 협의

E 학교 및 학년군 중점교육활동

① 핵심가치 나누기: 학교교육과정에 담겨있는 학교의 철학과 핵심가치에 대해 나누어봅니다.

② 학교 중점교육활동 논의하기: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 중점교육활동에 대해 집단지성을 발휘합니다. 핵심가치와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중점교육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 학년도의 교육활동은 참고가 될 뿐,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실태를 고려한 학교 중점교육활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③ 학교 중점교육활동 논의+α: 선정된 학교 중점교육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모읍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실행계획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면 단순한 활동이나 체험 위주가 아닌 교육과정 내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학년군 및 학년(급)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협의합니다. 학년군 교육과정 목표에 따른 1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과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상시교육활동 나눔]

- 교육과정 상의 교육활동을 시작하기 전 당해연도 학교,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나아가기
- 교육활동의 목표를 확실히 알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 지성 발휘하기

A 학생생활과 연결되는 상시교육활동 나눔: 교실나들이, 교실문턱 낮추기

① 교육활동나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설계, 공책쓰기, 온작품 읽기, 자율탐구, 놀이, 글쓰기, 마을교육과정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긴밀하게 연결된 교육활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동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의 문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가기 위한 교육활동 공유와 함께 학교에 대한 이해와 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교사가 편안하게 학교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6년간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힘이 발휘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② 교실나들이와 교실문턱 낮추기

- 교실나들이: 동료교사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가듯 다른 반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소재를 한정하지 않고 학급교육과정과 활동을 나누거나 교실 환경을 보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교육활동 결과물이나 공책을 소재로 수업과 아이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실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일상의 수업공개를 편안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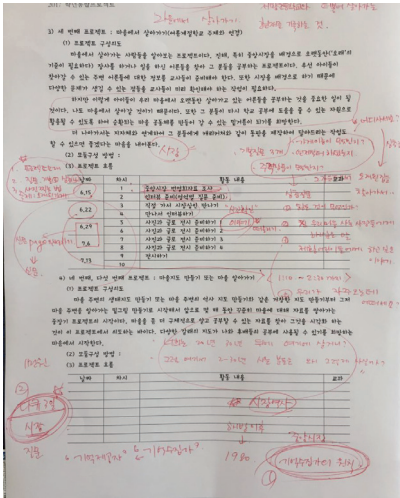
- 교실문턱 낮추기: 3월 한 달 간, 또는 일 년 동안 교실 개방 문화 조성을 위한 ‘교실문턱 낮추기’를 합니다. 상호 수업을 상시 개방하는 교실문턱 낮추기를 통해 다른 학년(급)에 대한 교육과정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수업협력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성이 아닌 일상의 수업을 개방하면서 서로가 수업 친구가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사전 협의]

- 교육과정 상의 교육활동을 시작하기 전 지금의 학교,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나아가기
- 교육활동의 목표를 확실히 알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 지성을 발휘

B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나아가기**

① 교육활동의 목표와 의미 나누기: 교육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육과정 속에서 그 교육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해당 교육활동을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성장했는지를 이야기 하면서 올해 교육활동의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② 올해의 교육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이전 학년도 교육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당해년도 교육활동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협의합니다. 이때 현재의 학교상황과 지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금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교직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답사를 가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을 보다 잘 알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활동을 처음 경험하는 교직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이 있는 교직원의 노하우가 만나면 같은 흐름으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전협의회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채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사후 평가]

- 교육과정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기
- 하나의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하기

C 내년 교육활동을 위한 제언

① 교육활동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를 격려하기: 사전협의회부터 시작해서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서로를 격려합니다. '수고했어요.'라는 한마디가 그 동안의 피로와 힘듦을 잊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과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혹은 내년의 교육활동을 위한 제언하기: 교육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면서 놓쳤던 부분이나 더 채워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빼야 할 부분이나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합니다. 서로가 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교육활동과도 하나의 흐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함께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2019. 마을나들이 '마을에서 살아가요'
[계항산 부엉이마을 친구와 함께 걷기] 사후협의록
계항초등학교

1.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5.3(금) 15시
나. 장소 : 1층 학습도움실

2. 참가자 명단
가. (붙임1)참고

3. 협의 내용
가. 1~2학년

- 1~2학년 수준에 맞는 코스 선정과 활동이었다.
- 활동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므로 학년 별 수준에 맞는 2~3개 정도의 여유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그림자 선생님의 진행으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 아이들이 친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
- 그림자선생님 사전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
- "공부가 뭐 이렇게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즐거운 활동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3~4학년

- 교육과정 자체에 지역화가 나와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
- 학교과 학년과 다모임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만든 코스라서 힘들어하지 않아 스스로 만드는 배움의 힘이 느껴졌다.
- 아이들이 만드는 활동은 많이 없고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아이들이 친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
- 어울림 마당보다 재미있다는 아이들의 말과 같이 노래 부르며 즐겁게 참여하고 하고 싶은 것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손과 입은 감동이다.
- 여유로운 활동이었다. 계획은 실제와 달라도 목적에 맞는 활동이라면 된다는 용용성이 필요하다.
- 색의 활동이 좋았다.

다. 5~6학년

- 그림자선생님의 프로그램 준비가 좋았다. 특히 안에서 식물 찾기 활동이 의미가 있었다.
- 교직원이라 활동들 사이에 스스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보였다.

- 중앙시장 가게 찾기 활동에서 상인분들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상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어 좋았다.
- 선유제가 맑게 온계를 깨끗하고 활동하였다.
- 기억수업가 시론1 활동에서 인터뷰했던 가게를 방문해서 활동의 즐거움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었다.
- 더 하고 싶은 데 졸업이라 안타깝다고 말하는 6학년들이 많다.
- 계항산 마을활동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거만스러웠다. 학생들 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 혼자 하는 행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힘이 느껴지는 행사였다.

라. 기타의견

- 학생 사전안전교육과 안전한 장소 선택은 항상 중요하다.
- 모두가 내 아이이다 실천 하는 학부모님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 활동을 하는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마주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공문장의 지차 활동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앞으로 많이 펼쳐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 계항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행사이다.
- 어린이날 행사임에도 축축들이 체험진 것은 아이들의 경험의 산물이다.
- 교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자치가 아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긴 것의 의미가 큰 행사였다.
- 스스로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왕다움이 보였다.
- 아이들의 표현력이 돋보였다.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기본으로 더욱 의미있게 즐겁게 활동했다.

마. 학부모 의견

- 아이들이 성장한 것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전반적으로 좋았고 재미있었다.
- 동네를 돌아 본 것이 지역인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이 될 것 같다.
- 활동이 간단할 경우 단체를 더 많이 허가나 방법을 다르게 해도 좋았을 것 같다. (명부, 몸으로 말해요 등)
- 지나치게 질서를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이 좋았다.
- 사전 짚는 전달 그림자 선생님도 있어도 좋을 것 같다.

4. 제언

- 고령된 학교 교육과정에 넣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 내년에 강당공사가 끝난 뒤 어울림 마당의 형태로 갈 것인지 마을나들이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2020학년도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워크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학년 컨퍼런스]

- 1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 '도전, 즐거움, 성장'이 있는 교육활동을 공유하기
-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갈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교육활동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A 교육활동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시간

- ① 학년별 주제 선정: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학년(급)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표할 교사가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나 다른 교사들에게 추천받은 주제들 중에서 2개 내외로 정합니다.
- ② 컨퍼런스 실시: 컨퍼런스는 대부분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연결되는 점이 있다면 같은 날 발표하여 학교교육과정의 큰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③ 질의 응답: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제언을 나눕니다. 서로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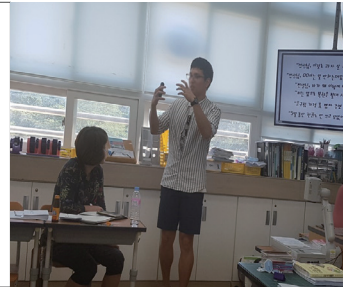
2023 권역학사 도전, 즐거움, 성장
'행복학교' 학급교육과정 컨퍼런스

• 일시: 7월 12일(수) 14:30 ~ 17:00
• 장소: 4학년 1반 교실

발표자	주제
2-1	1. 멋진 이야기(한정 생애교육) 2. 모험별 색칠(학부모의 참여하는 독서활동)
3-1	1. 학년 협력수업 2. 똑똑 우주 발사국 프로젝트(사회)
3-2	1. 자율 탐구 2. 여의 우주 발사국 프로젝트(문화예술)
5-1	1. 익살 탐구 2. 과학수업 '우주 큐레이터'
6-1	1. 역사 수업(독일문화가 프로젝트) 2. 학년통합 도덕프로젝트 수업

함께 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19 학년교육과정 컨퍼런스
"수고했어, 1학기"

7.22 월 (6-1교실)	7.24 수 (6-1교실)
3학년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1학년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4학년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2학년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5학년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학습도원반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6학년 한 학기 제창상이 나눔	2019학년도 1학기 진로역량심층평가



**┌ 우리들의 축제,
자기 자랑 대잔치!**



교육과정 컨퍼런스는 학년을 넘어서는 교육과정 나눔을 통해서 1학년 부터 6학년까지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서 학교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삶이 매년 분절된 것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나눔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문 닫힌 교실공간, 나만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동료를 믿고 아이들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습니다. 학급의 교육활동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나아가는 지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학생, 학교,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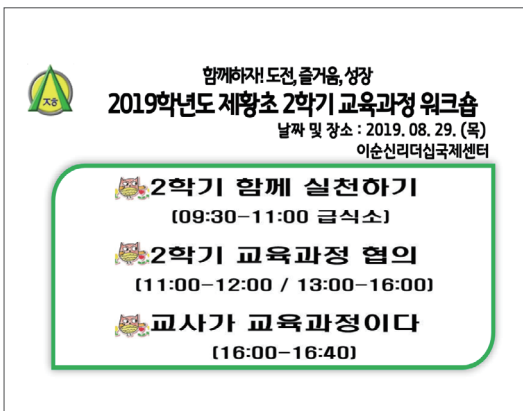
[교사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2학기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나누기]

- 교사로서의 우리의 모습 되돌아보기
- 학년군교육과정 협의
-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A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2학기 교육과정 워크숍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2학기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야기 나누며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장입니다.

학교교육과정, 학년군 및 학년(급) 중점교육활동 목표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며 2학기를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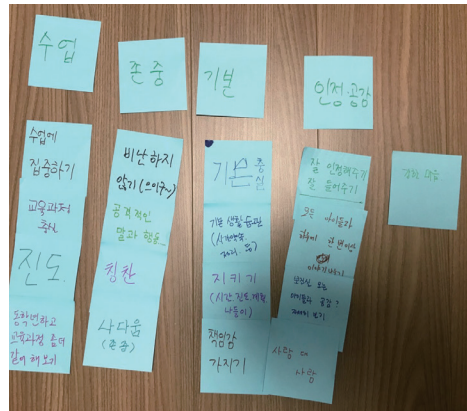


함께하재 도전, 즐거움, 성장
2019학년도 제9차 2학기 교육과정 워크숍
 날짜 및 장소 : 2019. 08. 29. (목)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2학기 함께 실천하기
 (09:30-11:00 급식소)

2학기 교육과정 협의
 (11:00-12:00 / 13:00-16:00)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16:00-16:40)



학교에서 교사로, 그리고 동료로 함께 하면

각자가 교사로 살아가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습니다.
 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어 기본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지지의 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 1년을 마무리 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지고 '도전, 즐거움, 성장'이 있는 교육활동을 공유하기
-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갈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도출하고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보 나눔

A 교육활동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시간

- ① 학년별 주제 선정: 1학기 교육과정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일 년 동안 학년(급)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표할 교사가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나 다른 교사들에게 추천받은 주제들 중에서 2개 내외로 정합니다.
- ② 컨퍼런스 실시: 학년말 컨퍼런스는 올 해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을 잘 이해하고 내년도 교육활동을 일관된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③ 질의 응답: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제언을 나눕니다. 서로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계정교육과정컨퍼런스

2018학년도 학년별 한해살이 나눔백서
"수고했어, 올해도!"

12.12.수 (4-1교실)	시간	12.13.목 (5-2교실)
노래로 마음열기	15:00-15:10	노래로 마음열기
2학년 한해살이 나눔	15:10-15:40	1학년 한해살이 나눔
4학년 한해살이 나눔	15:40-16:10	3학년 한해살이 나눔
6학년 한해살이 나눔	16:10-16:40	5학년 한해살이 나눔
배움·소감 나누기	16:40-17:00	배움·소감 나누기

하나의 흐름으로 6년의 교육과정

학년말 교육과정컨퍼런스는 학년교육과정 공유의 장에서 더 나아가 다음 해의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는 시간입니다. 올해 아이들의 도전, 즐거움, 성장을 이야기하는 정리의 장임과 동시에 내년도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꾸려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언을 통하여 항상 생생하게 역동하는 6년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공동체의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평가하기
- 학교의 집단 지성 발현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의 질적 평가도모

A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교사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학교교육과정 평가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면 학교교육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년별 학생간담회

올해를 되돌아보며 내년을 만들어가자!

① 학생간담회

◎ 1·2학년군

- 우리학교하면 생각하는 3가지로 적고 이야기 나누기

◎ 3·4학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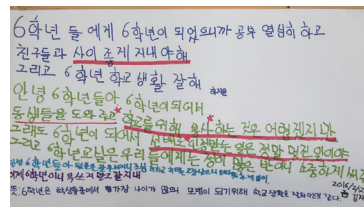
- 모둠별로 설문지 문항 보며 이야기 나누기
- 전체 이야기 나누기
- "함께 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외치며 마무리하기

◎ 5·6학년군

- 우리가 주인이 되는 학교교육과정
- 일년간 교육활동 중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 교육활동 이야기 나누기
- 내년에 더욱 집중할 활동, 의미 없는 활동 나누기
- 선택된 교육활동을 위해 해야 할 일 이야기 나누기

② 학년사용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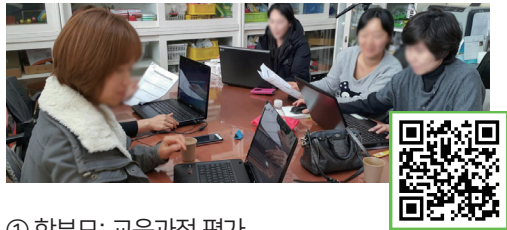
학년사용설명서는 아이들이 일 년을 보내면서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내년에 그 학년이 될 후배들에게 남기는 활동입니다.



B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평가-학부모

올 해의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내가 학교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모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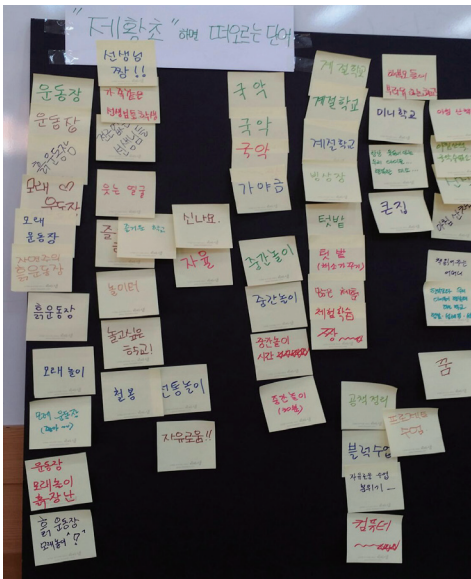
3. 우리학교에서 6년 동안 꾸준히 하는 다음과 같은 상시활동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에게 성장하리라 기대하는 학력(배움)은 무엇입니까?
숲 산책, 생각 공책, 국악 교육, 글 쓰기, 마을 배움, 책 읽기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4. 우리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마을, 학생) 특색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반영해야 할 학교(마을, 학생) 특색을 알려주십시오.
마을 특색, 학생 특색
5. 4번에 쓰신 마을, 학생 특색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을 특색, 학생 특색에 맞게 교육할 내용:
6.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년(군) 교육목표가 있습니다. 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1 2학년군] 학교는 즐거운 공부는 재미있어/ [3 4학년군] 우리가 주인되는 발자국 남기기 [5 6학년군] 내가 보는 나, 우리가 만드는 세상



- ① 학부모: 교육과정 평가
 - 설문지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
 - : 올해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 학교평가학부모 설문지 분석을 위한 학부모 모임
 - : 학교평가 학부모 TF팀이 구성되어 학부모 설문 통계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

“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라는 의미는 시키는 쪽이 있어서도 안되며 요구하는 쪽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먼저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

- 학교교육과정 반성 및 내년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부모 전체 간담회
 - : 학부모님의 의견은 공동체로 모아졌을 때 학교 교육의 방향성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전체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조직체계, 정례화된 회의라는 의미에서 교육과정 학부모 간담회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안건을 미리 이야기 나누고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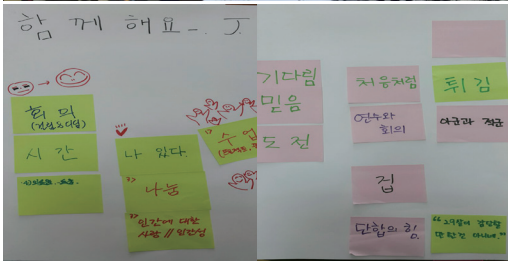


C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평가-교직원

교직원 각자가 선뜻 마음을 내어 학교 곳곳에 스며있는 '자기의 이유'를 찾아 갈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육과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각자의 이유를 찾아 내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을 더욱 행복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교직원: 교육과정 평가간담회



- '우리 학교와 '나' 그림으로 그려보기
: 자동차의 바퀴, 나무와 새, 꽃과 벌, 비행기와 승객, 배에서 함께 노 젓는 이들...
조금 흔들려도, 약해도 괜찮습니다.
각자 소중한 '자기의 이유'를 우리 학교에서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 이유 나누기
: 건강, 즐거움, 정의, 공감, 도전 등 세상의 많은 가치 가운데 순간순간 나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대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힘든 점, 함께 바꾸어야 할 것
: 언덕, 많은 회의, 함께 때로는 따로 등

- 우리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그 탁월함
: 우리가 꾸준히 잘 실천하고 있는 교육활동이 걸어진 길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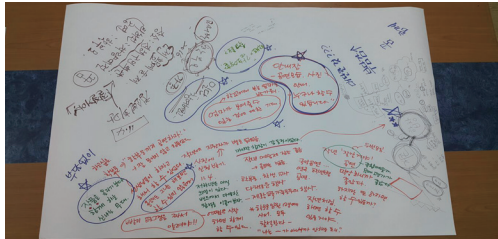
- | | |
|---|--|
| 1. 졸업식, 헤어짐 프로젝트 | 16. 국악교육 |
| 2. 입학식, 학급별 맞이, 황금의 첫주-인남 프로젝트 | 17. 제왕국익단활동: 군형제, 바다음악회, 개천예술제, 학생관현악축제 참가 |
| 3. 학년초 진단활동 | 18. 학년중점교육활동 |
| 4. 평가, 성장통지문 | 19. 교육과정 재구성 |
| 5. 전문직학습공동체운영: 교내연수(독서토론, 수업협의, 교실문턱넛추기, 수업나눔의 날 등) | 20. 학년통합프로젝트 |
| 6. 학교기방 | 21. 교육과정설명회 및 교육가족간담회 |
| 7. 화전, 송편 만들기 | 22. 영어교육 |
| 8. 생태교육: 아침산책/뒤편/숲체험 | 23. 상담 |
| 9. 학생자율동아리(4-6학년) | 24. 독서교육, 도서관 활동 |
| 10. 알뜰시장 | 25. 영양교육, 급식소 자리배치 |
| 11. 제철예술제 | 26. 도울반 이동 |
| 12. 학부모교육, 활동 | 27. 교직원 협의회, 직원체육, 친화의 날 운영 |
| 13. 계열학교 및 체험 | 28. 공간혁신수업 |
| 14. 학급별 야외 체험활동 | 29. 마을교육과정 |
| 15. 학생이 만들어가는 행사: 제왕마을나들이, 스승의 날 행사, 개교기념일행사, 예술제 등 | 30. 기타사항 |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간담회]

- 교육공동체의 참여 소통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평가하기
- 학교의 집단 지성 발현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나아가기

D 교육활동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시간

집단의 마음을 모으는 것은 머리를 모으는 것보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은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과정의 여러 모양과 색깔의 조각을 이어 내년도 교육을 위한 희망의 조각보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교육공동체 간담회입니다.



“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낮은 부분과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눕니다.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협의]

- 학교교육과정 평가 및 간담회의 결과가 반영된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협의

E 내년도 교육과정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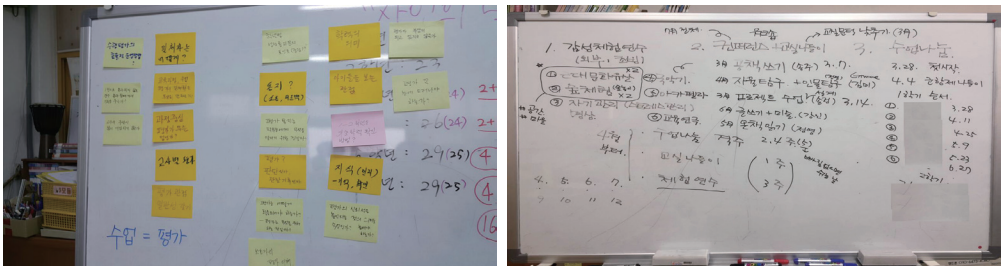
학교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학교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육공동체의 평가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교육과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학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합니다.



특히 학교교육과정과 학년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 나누어 생각을 모읍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협의의 내용이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수립의 기본이 됩니다.

- ▶ 프리즘 카드를 이용하여 연수의 의미, 필요성, 목적 되새기기
- ▶ 평가&새로운 학력관과 평가
- ▶ 올해 좋았던 학년프로젝트 중 지속해야 할 것
- ▶ 한 걸음 더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교육과정

[함께 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 학년 초 계획되었던 교육활동을 정리한 학년말 교육과정 실천편
- 교육과정의 일년살이를 정리하고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면서 또 다른 한해살이를 시작하는 바탕 마련하기

A 함께 한 도전, 즐거움 그리고 성장

학교교육과정에 씨를 뿌리고, 함께 물을 주고, 알뜰한 수확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힘이 있었 습니다. 돌아보면 하루하루 만만한 날이 없었지만 아이들과 학교를 생각하면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모든 날을 차곡차곡 담아 학교교육과정 실천편인 [함께 하자! 도전, 즐거움, 성장! 제항살이]를 발간합니다. 어디에서나 반짝반짝 빛날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동료교직원들이 함께 살아온 날들이 가득 담긴 책! 이 책과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합니다.

제항살이 발간



I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학년살이

1. 수업의 꽃 '프로젝트'
2. 1·2학년 제항살이 '학교는 즐거워, 공부는 재미있어'
3. 3·4학년 제항살이 '우주, 별자리'
4. 5·6학년 제항살이 '내가 보는 내, 우리가 만드는 세상'
5. 3·6년 학년통합 프로젝트 모음
6. 2018 영양 교육

III 행복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과 공유

1. 전문적학습공동체 이야기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2.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록
 - 수업나눔, 교실나눔이, 학년교육과정 컨퍼런스(1,2학기)
3. 행복학교 공개와 공유
 - 교육과정 수다카페 1,2학기
 - 부원산책방

II 배움과 성찰을 담은 평가통지 - 제항성장통

1. 바뀐 수업 어떻게 평가하나? 제항평가에 대한 생각
2. 1학년-6학년 성장통지 모음

IV 2018학년도 제항행복학교 운영

1. 행복학교 운영 계획
2. 행복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3. 2018학년도 교육과정 평가 자료-교사, 학부모

- 제항살이는 해마다 교육활동들을 정리하여 모은 책입니다.
- 매년 학교의 도전, 즐거움 그리고 성장의 기록들을 모아 내년도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 ☑ 동료들과 **함께** 했는가?
- ☑ 두려움 없이 **도전** 했는가?
- ☑ 과정의 **즐거움**을 느꼈는가?
-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했는가?

Chapter 06

학교교육과정 상상하다

The future is here. It's just no widely distributed yet.

미래는 여기 있다. 다만 골고루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윌리엄 김슨)

미래는 과거와 현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읽으며

맞이할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맞이하고 싶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

- √ 인구구조의 변화
- √ 경제적 불평등
- √ 기술발달과 혁신
- √ 사회의 다양성, 세계화
- √ 4차 산업 혁명

미래사회의 주요 영향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 불평등, 기술발달과 혁신, 사회의 다양성과 세계화, 4차 산업 혁명으로 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미래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인구와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고령사회 진입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곧 부의 양극화를 의미한다. 세계화와 승자독식 경제로 인해 2030년 부의 편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략>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높여 출발선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주요 선진국들처럼 빈곤층 자녀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찬승, 2016)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 평등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술발달과 혁신	기술발달로 인해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은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직업과 관련된 진로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홀로그램, 모바일, 3D 프린팅 등의 기술발달은 학교 교육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이질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감수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중요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 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의 융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융합이 경제, 경영, 사회, 개인 수준의 총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Schwab, 2016, 윤종혁 외, 2017 재인용) 4차 산업혁명은 공간적 제약과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산업, 고용구조를 변화시켜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사회와

학교

- √ 청소년 지원 종합 센터
- √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학교
-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 √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수립과 운영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
센터

가정에서 부모가 주로 맡아왔던 역할의 상당 부분이 가족관계 및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학교로 전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학교는 교육 이외 돌봄, 건강, 안전, 진로탐색 등의 기능이 더욱 부가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종합 서비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초·중등 단계의 교육, 돌봄, 건강, 사회관계, 진로탐색 등 다양한 필요를 학교 안에서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각기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는 사회 여러 조직들이 더욱 발전할 것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네트워킹하여 초·중등 학령기 학생들의 성장 지원에 협력할 것이다.(김경애 외, 2018) 이로 인해 교사는 사회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과 의사소통하고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학교

직업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빨라지면서 고용 안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에 대한 요구로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평생학습체계가 되면 언제든지 학습할 기회가 있기에 초·중등 시기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는 학습량과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학생 수도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선발체제에서의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은 전체 평생교육체제의 특정 시기라는 관점에서 재구조화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평생학습자로서의 학습역량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김경애 외, 2018) 평생교육 관점에서 초·중등교육은 평생학습자로서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또 학교는 모든 국민이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제도를 개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앞으로의 혁신교육은 '지역화 된 교육'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화된 교육이란 지역을 통한 교육, 지역에 관한 교육, 그리고 지역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적 시민교육 이든 글로벌 교육이든 자라나는 세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배움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배우는 것이고, 그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지역의 '올바른' 주민이 되는 것이 민주적 시민교육이고, 그 지역과 연계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글로벌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중략>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이상,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교육의 틀이 지역사회로 번져가야 한다. (윤종혁 외, 2017) 이를 위해 지역과 학교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수립과 운영

국가교육과정의 유연화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윤종혁 외, 2017) 미래학교는 교육과정 수립·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이 혁신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에는 어떤 인재상이 요구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래의

학교교육과정

√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

√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 진로교육 중심의 맞춤형 교육
- 융합형 인재 육성 교육과정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 협력과 탐구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학습
- 학교-세상 연결 학습
- 메이커스페이스와 게임 기반 학습

√ 잘 가르치고 배웠는지 어떻게
평가할까?

- 표준화된 평가가 아닌
개인의 성장을 돕는 평가
- 역량중심 평가,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 학력인정, 자격증

미래학교의
인재상

미래학교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 21세기 역량²⁾ 등 미래사회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역량들을 통합하여 재설정한다. 이는 학교의 필요성과 맥락에 따라 역량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국제글로벌 리더십을 지향하는 학교에서는 세계시민의 역량이 중요할 것이며, 혁신적인 진로 탐색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학생들의 교육목표로 정할 것이다.(김현진 외, 2017) 미래학교의 인재상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필요성, 맥락에 따라 실용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진로교육
중심의
맞춤형교육

학교에서는 전체 학습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개별 학습자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에서 사회화가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고 기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개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기에 초·중등학교에서도 개별 진로를 존중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김경애 외, 2018) 학습로봇, VR, 3D 프린팅 등의 기술발달은 맞춤형 교육을 가속화 시키고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융합형
인재 육성
교육과정

예술적 감성은 지금도 교육이나 비즈니스, 연구개발 등에서 중요한 요소다.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마케팅에서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것을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술과 예술의 합성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지금 학교에서는 이른바 ‘STEAM’ 교육을 하고 있다. STEAM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통합저그로 가르치는 STEAM 교육에서 Art를 접목한 것이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창의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SciArt(사이아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예술이 들어간다. 예술적 감성과 인간적 속성은 미래교육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최연구, 2014)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 전체 또는 교과의 일부를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개인의 목적과 흥미에 따라 분야, 과목, 학교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다. (이찬승, 2016) 학제, 학년, 과목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학습자 개개인의 목적과 흥미에 따라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될 것이다.

2) 21세기 역량은 다양한 자료에서 소개되었으나, 대부분 문제해결력, 창의력, 의사소통력, 사회정서역량 등과 같이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일반적으로 갖추면 좋은 덕목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여섯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도 맥을 같이 한다.(김현진 외, 2017)

미래학교의 수업

협력과 탐구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 학습

미래에는 지금보다 지식의 반감기가 더욱 빨라져 기존에 확립된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여 탐구하고 문제해결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학습과정일 것이다.(김경애 외, 2018) 학교에서는 의사소통에 기본을 둔 상호 작용적 교수 학습 방법 적용,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과 탐구에 기반을 둔 협동학습 교수학습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윤종혁 외, 2017)

미래사회는 지식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성 과정을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아이디어를 생산해 실제 사회에 반영되는 등의 형태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미래학교의 수업

학교-세상 연결 학습 (크로스오버 학습, 디퍼러닝)

학습은 점점 더 맥락이 있고 범교과적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이찬승, 2016) 이를 위해 학교와 세상을 연결하는 학습 방법인 크로스오버 학습, 디퍼러닝 등이 활용될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학교와 같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잘 쓰여진 교육내용대로 의도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형식교육이다. 반면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달리 의도성, 체계성, 지속성이 결여되거나 매우 약하며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 밖 교육이라고도 한다. 교실에 앉아 가르치고 배우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가령 박물관에서는 전시된 유물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고, 미술관에서는 예술작품을 통해 살아있는 예술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중략> 미래에는 형식교육보다는 학교 교육 이외의 비형식교육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최연구, 2014) 크로스오버 학습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넘나들며 배우는 것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디퍼러닝은 보충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과 내 지식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문제 해결과 연계되도록 한 깊이 있는 설계를 통한 비판적 사고, 협력, 문제해결, 자기주도학습 등의 경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Horizon report, 2016, 김현진 외, 2017 재인용) 디퍼러닝은 한 가지의 주제를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 학습이다.

미래학교의 수업

메이커 스페이스와 게임 기반 학습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이커 운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용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누구나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의 민주화 시대에 도래되었는데, 거대 장비, 공장 등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대중들이 아이디어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여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창작이 가능해졌다. <중략> 메이커 스페이스의 활성화와 메이커 운동의 시작으로 '초저비용 및 저위험의 돈이 들지 않는 창업 시대'에 도래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종혁 외, 2017) 메이커스페이스는 일종의 작업 공간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는 곳으로 미래학교의 수업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수용과 생성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게임과 학습은 더 이상 상반되는 활동이 아니게 될 것이다.(이찬승, 2016)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생들은 즉각적인 피드백과 평가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게임 기반 학습(미션 수행 형태의 학습)이나 단위 수업 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미래학교의
평가

표준화된
평가가 아닌
개인의 성장을
돕는 평가

학습은 개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표준화된 외부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찬승, 2016) 평가는 선발이나 줄 세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표준화된 평가에 의해 일괄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교육목표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 피드백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과 수업자료, 수업방법을 찾아주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미래학교의
평가

역량 중심
평가,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평가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가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란 개별 학생의 산출물 또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모은作品集 또는 서류모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의 진단 및 타인의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조은순, 2016, 김현진 외, 2017 재인용)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와 같은 질적 평가를 신뢰도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미래학교의
평가

학력인정,
자격증

2030년이면 학습과 학력인증의 경계가 흐려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학점과 학위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과 자격증명서가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이 수여하는 자격증이 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 졸업장보다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중략>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자격을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공교육과는 별개의 다양한 자격증이 나타날 것이다. (이찬승, 2016)

평생학습 연계 평가 체제란, 공인된 시험 연계 및 디지털 배지와 같은 학교 외 형식, 비형식 기관의 평가와 전통적 학위과정에 인정되지 못하는 기술 및 능력 부분에 대한 평가인증 체제를 연계하는 것이다. 평생학습 연계 평가 체제 중 공인된 시험의 연계란, 평가기관 교육기관 모두를 포함한 외부의 공인도니 시험의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내 평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인된 시험 연계형의 평가는 영역별 평가방법의 차별화, 학생 개인의 특성 파악, 학습활동의 지속적 관찰 등을 가능케 한다. (김현진 외, 2017) 외부의 공인된 시험, 디지털 배지 등과 같이 평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자격증과 학력의 위상이 동일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의

학교공간과 학교조직 그리고 교사

√ 미래의 학교공간과 조직

- 유연한 주제 중심 공간
- 친환경, 첨단, 지역공동체센터 학교

√ 미래의 학교조직

- 교사와 교사 외 전문 인력이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재구조화

√ 미래학교의 교사

- 교육과정의 전문가, 연구자, 협력자

<p>미래의 학교공간</p> <p>유연한 주제 중심 공간</p>	<p>미래의 학습공간은 변화하는 수업방식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수업형태에 따라 융합교육, 메이커스페이스, 개별학습공간과 소집단학습공간의 분리,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공간, 수업형태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가변적 교실과 디지털화된 가변적 가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김현진 외, 2017)</p>
<p>미래의 학교공간 친환경, 첨단, 지역공동체센터 학교</p>	<p>미래학교의 공간설계는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생산해 낼 수 있는 체제, 학교 전체에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학습을 지원, 지역공동체로서 공유와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학교 공간 설계를 의미한다.(김현진 외, 2017)</p>
<p>미래의 학교조직</p> <p>교사와 교사의 외 전문 인력이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재구조화</p>	<p>미래학교는 교사와 교사 외 전문 인력이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교사 외 전문 인력은 유지보수, 학생지원, 건강센터, 재정, 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다. 미래학교의 조직 재구조화란 조직 단위의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과정 및 수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학교 간 클러스터 또는 교육행정의 지능화와 스마트워크체제를 통한 업무경감, 신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세 요소를 통해 미래학교를 지향하는 조직차원이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학교 간 클러스터란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미래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프라 및 전문 인력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학교의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다. <중략> 신교육과정위원회란, 기존 상주하는 교육과정위원회와 연계 또는 대체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를 위한 기획팀이다. 외부 설계 지원 인력풀로써 학부모와 크로스오버러닝,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이 교사와 함께 설계하는 T/F의 기획과 지원을 공식화 하는 것이다. <김현진 외, 2017></p>
<p>미래학교의 교사</p> <p>교육과정 전문가 연구자 협력자</p>	<p>학교교육체제 변화의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수권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실행을 교사에게 위임하는 교육과정 수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미래 학생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 장학과 교원평가, 승진제도 개선 등의 현안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윤중혁 외, 2017)</p> <p>교사는 교육과정의 주체자가 되어 학생들이 맥락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배우고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코치, 온라인학습관리자, 교육소프트웨어개발자, 프로젝트 학습 조력자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수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수업컨설팅은 실질적이며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자, 교육 현장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론 및 정책을 위한 제안자, 지역사회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p>

〈참고문헌〉

김경애 · 류방란 · 김지하 · 김진희 · 박성호 · 이명진(2018).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초 ·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논총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8, Vol. 39, No.3, pp.1-29

이찬승(2016).

2030년 미래사회와 학교교육의 변화. 서울교육 특별기획 Vol. 224, 가을호

윤종혁 · 양성관 · 박승재 · 조옥경 · 황은희 · 김규식 · 최영철(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 · 김은영 · 이은상 · 계보경 · 이은환 · 김현영 · 이가영 · 이봉규(2017). 미래학교 설립 ·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최연구(2014).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예측과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uture Horizon:Autumn* 2014(제22호)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각 학교로 전면 이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학교의 학생 수, 학생들의 생활모습, 학교의 위치, 주변 환경 등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또 하고 싶은 교육을 짚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 때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보고 흉내 내었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적힌 학교의 이름을 덮고 내용만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학교교육과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학교가 달라도 학교교육과정은 왜 똑같은지 질문해 봅니다. 국가, 지역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촘촘하기 때문인가요? 교육과정 없이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느 학교든 똑같은 교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교육과정을 '상상' 할 때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이미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살아왔기에 틀에 갇혀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애써 또 다른 상상을 하려는 이유는 더 나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려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과정 '삼시세끼'를 닮아야...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한적한 시골을 배경으로 세끼를 해결하는 모습을 훈훈하게 그리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들이 살아야 하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과 주변을 둘러본 후 아궁이를

만들고 솥을 거는 일입니다. 솥을 거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삼시세끼에서는 공통적으로 솥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같은듯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삶의 공간에 따라 어촌편에서는 통발과 낚시대를 준비하고 산촌편에서는 호미와 닭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삶의 공간에 따라 '산촌편', '어촌편' 등으로 부제가 붙습니다. 학교교육과정

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도 학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통발을 준비할지 호미를 준비할지 알아채는 것, 그것을 알아채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교육을 담은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맞게 만드는 교육과정입니다. 기성품으로 나온 옷을 아이들 팔이나 다리 길이를 재어 길면 줄이고 짧으면 천을 덧 대어주는 과정을 통해 맞춤옷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총론, 각론, 편성 운영 지침 등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잘 엮어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배움을 담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학교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의 나침반이 되어 어느 곳이든 언제든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을 실현하는 데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줄이라도 우리 학교 이야기를 학교교육과정에 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교육과정, 학교를 담다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학교 교육과정

총괄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집필

김혜영 산외초등학교 교사

김기환 위성초등학교 교사

김미연 제황초등학교 교사

서영현 남명초등학교 교사

박수현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윤혜정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오지현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사

이명원 창원한들초등학교 교사

장병학 구봉초등학교 교사

황복만 안명초등학교 교사

기획/연구

신종규 행복학교담당 장학관

홍기표 행복학교담당 장학사

김덕진 행복학교 담당 파견교사

발행일 2019. 12.

인쇄일 2019. 12.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055-210-5111)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인쇄처 드림기획 (055-264-3150)

